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희석돼가는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명하신 바 그 뜻을 따라 더욱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1월 28일 (토) 제 156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경, 예수십자가 죽음, 선교 그리고 영생 믿는다!

NAE/라이프웨이, 미 전역 1,000명 설문 통해 '복음주의 정의' 재천명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는 개혁주의와 달리 특정 교파적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복음주의 안에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함께 할 수 있다. 복음주의의 어원은 종교개혁 시대로 올라간다. 복음주의는 독일에서 루터교인들과 개혁주의자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던 개념이었다. 처음 반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을 루터파 교도 또는 마틴파 교도라 불렀으나 1521년 루터는 복음주의자라고 고쳐 불렀다.

루터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복음주의는 오늘날 정의 내리기가 그리 쉬운 용어는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 복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포괄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에 대한 오해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에서 복음주의 진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미 복음주의연합(NAE)와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교회에서 복음주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일련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연구 중 이번에 전화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통해 복음주의가 무엇을 말해주는 지를 알려준다(What Is an Evangelical? Four Questions Offer New Definition: NAE and LifeWay Research say belief should trump politics on surveys).



개혁주의와 달리 그 폭이 넓은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가 NAE와 라이프웨이 설문조사로 다시 강조됐다.

복음주의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종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다. 가령,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교회를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 성향에 따라 정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편향에 따른 분류였다고 복음주의연합(NAE)은 지적한다.

따라서 NAE 회장 레이 앤더슨 목사는 "복음주의는 이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에 따라 정의돼야 하며, 정치적 성향이나 인종에 따라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다음과 같은 4 가지 진술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최상의 권위이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우리들의 죄를 도말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NAE는 위와 같은 4가지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복음주의자"라고 정의한다.

'라이프웨이'는 전화 설문들로 17개 문항들을 만들었고, 위와 같은 4가지 명제들로 요약했다. 복음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자문이나 직접 참가한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 사회학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공통분모를 만든 것이다(Richard Mouw, Paul Nyquist, Mark Noll, Rodney Stark, Christian Smith, Penny Marler, Nancy Ammerman, Mark Chaves, Scott Thumma, Warren Bird, Andre Rogers, Peter Lee, Tammy Dunahoo, Gabriel Salguero, Heather Gonzales, Samuel Rodriguez, Kevin Smith, Jo Anne Lyon, Leith Anderson, and Lynn Cohick).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4개로 요약될 수 있는 복음주의 정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미 영국의 사학자 데이빗 베빙턴(David Bebbington)은 복음주의의 네 가지 특색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베빙턴의 사각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회심주의(conversionism) - 성령에 의한 회심("중생", "거듭남", "새로남" 또는 "구원") 경험을 강조한다.

<3면으로 계속>

IS 격파, 군사적 작전 강행만으로 역부족!

뉴스위크, "정치적 화해, 테러 정당화 믿음 불식시켜야" 보도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상의 무차별 공격으로 세계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다. 최소한 129명이 사망했고 350여 명이 부상했다. 희생자들에게 죄가 있다면 서방 세계의 가장 낭만적인 도시 파리에서 금요일 밤을 즐기고 외출한 것이 전부였다.

파리 테러가 불러일으킨 충격과 분노는 2001년 9-11테러 후 근 15년 동안 발생한 술한 테러와 똑같았다. 그러나 세계가 느끼는 좌절은 이전보다 훨씬 컸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서방의 주요 수도가 또 다시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고된 사실이었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학살이 유럽으로 번진 것이다. 게다가 시리아 사태와 직결된 사건이었다. 여러 분파가 싸움을 벌이는 잔혹한 시리아 내전으로 2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그중 다수는 서방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 한다.

이번 파리 테러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국가(IS)를 어떻게 격퇴할 수 있는가?'로 세계인들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뉴스위크는 커버스토리를 보도했다(Paris Attacks Spark Calls For Heightened War On ISIS, But Defeating Islamic State Will Not Be So Simple).

IS, 석유판매로 월1천만불 수익... 주변국 협조 얻어 암시장 차단 가장 힘든 건 이념문제... 내전중 중동국 설득 IS이념과 싸우도록

거액의 예산과 공습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IS를 이미 격파해 역사 속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이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를 격파하기 위한 '내재적 결의(Inherent Resolve)' 작전에 50억 달러 이상(하루 약1100만 달러)을 쏟아 부었다. 또 지난 10월 초까지 미군은 공습으로 IS 표적 1만4000개를 파괴했다.

그러나 IS가 거의 무력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난 11월 13일, 그들이 잠복 조직을 동원해 파리를 공격하자 그 엄청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공격 후 몇 시간 만에 프랑스와 미국은 군사적 보복을 새롭게 다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작전 강화만으로 중동이나 여타 지역에서 IS를 격파하기 어렵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평정하려면 반대 단체를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동시에 공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현지 주민의 불만과 고충을 완화하는 정치적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현지 정부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가족은 식탁에 음식을 얹어놓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부터 이라크까지 최근의 사례를 보면 그런 보완적 노력 없이는 공습으로 IS를 격파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런던정경대(LSE) 교수로 IS와 알카에다 전문가인 파와즈 게르게스는 "아주 복잡한 전투"라며 "이념·정치적 전술과 군사 전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버튼만 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작전 강화만으로 중동이나 여타 지역에서 IS를 격파하기 어렵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평정하려면 반대 단체를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동시에 공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현지 주민의 불만과 고충을 완화하는 정치적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현지 정부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가족은 식탁에 음식을 얹어놓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부터 이라크까지 최근의 사례를 보면 그런 보완적 노력 없이는 공습으로 IS를 격파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쿠바교회, 열정과 자생력 소멸될까...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복음서 이야기 박시경 박사



16면

고난의 신학: 음기에 대한 묵상 이승현 박사

2015 아주사 송년의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APU동문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015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APU송년의밤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시오.

일시 12월 7일(월) 오후5시 30분

장소 시온성결교회(최경환 목사 시무)

2149 W. Washington Bl, LA, CA 90006

설교: 이원우 교수(미시건 칼빈대학교)

문의: 동문회 대표 최장식 목사 (818)331-5478, 회계 김사라 전도사 (310)988-0099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AZUSA PACIFIC UNIVERSITY



쿠바교회, 열정과 자생력 소멸될까...

CT, 미-쿠바 여행규제 완화로 미국식 소비주의 범람 우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버나의 말레콘 해안도로에 미국 대사관 문을 다시 연 바로 그 주에, 크리스 처니티투데이(CT) 특별 취재팀도 쿠바로 날아갔다. CT는 라 아페르투라(La Apertura, 신 개방)-쿠바와 미국 사이의 새로운 외교적, 경제적 개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쿠바와 플로리다 사이에 카리브 해를 두고 서로 90마일 떨어져 있는 양쪽의 그리스도인들은 갑작스런 이 개방에 크게 놀랐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냉전시대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여행과 교통통신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선언했다. 쿠바 주민들은 이 섬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얼어붙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쿠바를 찾는 여행객들도 이 나라가 다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나라가 그동안 겪은 경제난을 떠올리면서, 한 목사는 CT에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비밀재해합니다."

쿠바 혁명이 남긴 많은 유산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54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나에서 생조기가 올라가기 전에도, 이 수도에 사는 남자들의 티셔츠와 여자들의 카프리 반바지에는 생조기 디자인이 등장했다. 따라서 쿠바 교회 지도자들은 밀어 닥칠 미국 문화 범람에 과연 쿠바 교회의 자생력과 열정이 지켜질 수 있는 지를 지도하고 있다(Special Report: Will Success Spoil Cuba's Revival?)고, 쿠바 현지의 분위기를 보도한다.

3000명이 모이는 대형 침례교회의 선교 디렉터인 필리페 산토스가 말한다.

CT가 인터뷰한 거의 모든 쿠바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해 희망적이다; 이념들과 물질적인 것들의 "쇄도"에 대해서 우려한다; 미국이나 쿠바 양쪽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 미 시작된 급속한 변화에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쿠바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인 방문객들이 물질주의와 생명이 없는 명목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쿠바 문화를 파괴하지 않을까, 또는 쿠바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우리는 소비주의에 대해 매우 마르크스주의적인 비판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소비하는 능력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말입니다." 뉴파인스 복음주의 신학교 출신 캠퍼스 이사인 알프레도 포헨스 에르난데스는 말한다. "지금 미국이 쿠바에 소비주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한밤중 쇼핑가 프트머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팔 물건보다 고객 의자가 더 많은, 빛바랜 청색과 핑크색의 베라 카페테리아에 들어가려고 줄 선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벤치, 대형화분, 환관 입구 계단, 보도의 연석에 걸터앉아 있다.

그들의 얼굴은 다들 붉게 타오르는 것 같다. 쿠바산 입담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의 스크린이 얼굴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약 35개의 공공 핫스팟이 쿠바 주요 도

양측 지도자들 "이미 시작된 급속한 변화에 준비 돼있지 않다" 기독교 수출 준비... 지난봄 54년 만에 첫 풀타임 선교사 파송

시들에 들어왔다. 1시간짜리 와이파이 접속 카드를 3페소(약3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화상 채팅을 하는 쿠바인도 많다.

"거리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복해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29세의 카드 판매원의 설명이다. 그는 생조기 디자인 티셔츠에 과달루페의 성모 목걸이를 하고 있다. 팔뚝에는 쌍둥이자리 문신이 있다.

"우리의 지금 생활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느 목사의 사모가 한 말이다.

택시 기사는 20일 전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해봤다고 말한다. 그는 이탈리아에 사는 아내의 가족에게 인터넷으로 전화를 했는데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말도 서로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다들 감정이 북받쳐서 아무런 말도 못했던 것이다.

요즘 일요일에 아버나 항을 사진 찍으러 오는 여행객들은 쿠바에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확성기와 울동을 완비한 진짜 복음주의 교회 예배 말이다.

CT가 2009년에 마지막으로 쿠바를 취재했을 때, 알칸스 빅토리아-강과 마약, 매춘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다는 평일 밤마다 거리 전도를 했다. 현재 이 교회는 주일 아침 아버나에서 가장 붐비는 곳인 라 폰타에서 모인다. 라 폰타는 말레콘 해안도로와 아버나 항 초입이 만나는 곳이다.

아벨 페레스 에르난데스 목사는 13년 된 알칸스 빅토리아교회에 현재 500명이 모이며, 매주 42개의 가정교회가 모임을 갖는다고 말한다. 아버나 항을 향해 포신을 열고 있는 대표 바로 옆에서 이 교회 성도의 절반가량이 명화가 그려져 있는 양산들 아래 모여 있다. 성도들은 살사와 레게 찬양 곡을 부르고 청소년 10명이 방과제 앞에서 울동을 한다.

그들 뒤 방파제 벽에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의 낙서가 눈에 띈다. 이 거리 전도는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지원한다. 그 브라질 선교팀의 쿠바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이곳에 오기 위해 그들은 여느 때보다 비용을 두 배나 더 지출했다. 불가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에 있는 1만

이 섬나라의 정치와 빈곤과는 상관없이,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쿠바교회의 부흥은 중국의 그것과 비교되기도 한다.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서부침례교회(쿠바 침례교회는 서부와 동부, 두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지도자가 말한다. (3면으로 계속)



범사에 감사도 순종이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인터넷에서 화제인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23일 새벽 5시 30분, 뉴저지의 한 식당입니다. 두 남성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이들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오늘 당신들의 아침은 제가 대접할게요." 이 여성은 식당의 종업원 24살 리즈 우드워드. 그녀는 이 식당의 7년 차 종업원입니다. 밤새 식당 일을 한 후 가게를 청소하고 퇴근하려던 그녀는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두 남자는 소방관 팀과 풀. 풀은 지난 밤 창고에 난 불을 끄기 위해 12시간 동안 진화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친구인 팀은 밤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그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큰 커피 주세요." 팀과 풀은 아침 식사를 하며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에 감동한 리즈는 그들에게 영수증 대신 쪽지를 건넵니다. "두 분의 아침 값을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입니다. 오늘은 꼭 쉬세요!" 소방관들은 이 따뜻한 쪽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식당에 간다면 그녀, 리즈 우드워드에게 많은 팀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얼마 뒤 소방관 팀은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리즈가 사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즈는 사지마비 환자인 아버를 위해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그를 돌보던 겁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채 탐사할 수 있는 벨을 사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소방관 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의 사연을 전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관들에게 선행을 베푼 리즈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인 기부금액은 53,000달러! 부모님 결혼기념일인 12월 30일까지 사지마비 환자인 아버지를 위해 벨을 사려고 모으려던 목표 금액은 17,000달러였는데, 3배를 넘는 금액이 단 하루 만에 모였습니다. 리즈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감사가 불러온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부모님은 작은 감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가르쳐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힘든 소방관들의 웃음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참 감동 받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는 2가지 징조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기근, 지진, 전쟁,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등등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우주론적 징조요, 다른 하나는 사도바울이 디모데후서 3:2-5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19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세태론적 징조인데, 그중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때 감사치 아니하는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의 현미경으로 내 인생을 조목조목 들여다보아 "찾아내어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주시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주시고 등등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중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혹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무한 신뢰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즉 내 인생 안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제 감사했어야 아니라, 내일 감사할거야가 아니라, "오늘 감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살전 5:18)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순종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원시는 것을 해드릴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할 아버지인 하나님이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감사 바이리스를 퍼뜨리셔서, 감사하는 내가 있기에 교회도, 가정도 감사가 가득하고, 감사하는 내가 있기에 일터와 직장도, 친구들과 이웃들 간에도 감사가 가득해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로 인해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사에 항상 당신의 뜻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더 큰 감사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안에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와 은총과 축복은 같이 갑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 감사의 주인공, 그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 |
|--|---|
| <p>L.A. Office</p> <p>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p> | <p>N.Y. Office</p> <p>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포)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포)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Lecture will be only in English, but class notes and power points will be presented both in English and in Korean (강의는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나 강의안과 파워포인트는 영.한 이중어로 제공할 것임)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성경, 예수십자가 죽음, 선교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

(1면에서 계속)

△성경주의(biblicism) -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한(only) 또는 일차적(primary) 권위로 본다. △행동주의(activism) - 문서선교나 해외선교 등의 선교 활동을 강조한다.

△십자가주의(crucicentrism) -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본다.

그러나 이번 정의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동이나 실천이 아닌 바로 믿음 그 자체이다. “교단 소속이나 신앙 행위는 복음주의적 믿음이나 신념들 위에 덧입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 자체가

바로 복음주의 운동을 규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라이프웨이 부소장 에드 스테저는 강조한다.

스테저에 따르면 4개의 진술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크리스천일수록,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측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00명의 성인들에게 전화 설문은 벌였다(신뢰도 95%, 오차율 +/-3.7%).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은 성경의 권위(52%)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58%)을 받아들였고, 전도(49%)와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48%)을 인정했다.

결국 설문에 응한 1,000명의 성인들 중 30% 정도가 “믿음에 따른 복음주의자”라는 틀에 부합되었다. 이 결과는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2014년 행한 ‘미 종교분포도 설문 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된다. 퓨리서치에서는 35%가 자신들을 “중생했거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했고, 25%가 복음주의적 교회에 다닌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한편 복음주의를 정의할 때, 주의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정체성 △믿음 그리고 △행위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사항들이 맞물려 복음주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크리스천들은 복음주의적 학교들을 다니지만,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싫어

하고,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4가지 진술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복음주의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진술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요구된다.

결국 NAE와 라이프웨이가 이번

에 다시 천명한 복음주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믿음과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성경적인 설교와 전도에 헌신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이끈다 라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정의를 일깨워주고 있다.

IS 격파, 군사적 작전 강행만으로 역부족!

(1면에서 계속)

IS는 지난해 6월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면서 급부상한 후 그달 말에 칼라트 제국 건설을 선포했다. 그 이래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하고 여성을 성노예로 팔았으며 종교·민족 소수자를 학살했고 인질을 무참히 참수했다.

미국이 이란 연합군은 1년 이상 IS를 공습했다.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프랑스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공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리아 반군을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프로그램은 신병의 절반 이상이 퇴출되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지난 10월 초 중단됐다. 그 이래 IS는 이라크에선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파리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잇따른 테러공격을 감행했다.

이슬람 지하드 단체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IS와 싸우는데 군사적 요소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전략은 군사적이라고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이 없다는 얘기다. 브루킹스연구소 중동 정책센터의 대니얼 바이먼 선임연구원은 “공습이 IS의 약진을 막는데 도움이 됐지만 패퇴시키려면 좀 더 효과적인 지상군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IS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단순한 전략은 그 후의 권력 공백을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런 공백은 극단주의 단체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IS 격파를 원하지만 그 후 누가 그들을 대체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바이먼 연구원은 “서방 국가들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꺼리고 현지 동맹 세력이 허약한 관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의 반군단체 사이에 반목이 심하고 부패가 만연해 군사적 이득이 헛수고가 되기 쉽다. “현지 반군단체들은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일부는 반군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IS를 상대로 얻는 군사적 이득을

유지하는 데는 그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소재 중동연구소의 알렉스 바탄키는 “IS는 중동 어디서든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확장주의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군사적으로 격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을 격파한 뒤 그냥 떠나서는 군사 작전이 대선 안 된다.”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 미국 관리들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여러 단체와 시리아 정권에 석유를 판매해 하루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고 추정했다. 그 이래 추정치는 월 800만-1000만 달러로 줄었지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IS는 전투를 지속할 자금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IS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면, IS의 자금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바탄카 연구원이 말했다. IS로 흘러가는 무기와 자금을 막도록 걸프 국가에서 압력을 넣는데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한 일이다. 바탄카 연구원은 “그 분야에서 주도권을 쥔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비록 약연이긴 하지만 중동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지난 11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자국에서 최악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라 그런 역할을 떠맡을 동기가 충분하다. 따라서 프랑스는 석유 암시장을 단속하도록 중동 국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IS를 상대로 한 경제 전투에서 반드시 총대를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다. IS의 주된 수입원이 암시장(예를 들어 약탈한 문화재도 판매한다)이지만 올해 이란을 핵협상에 합의하도록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 같은 경제 제재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미국 듀크대학 테러·국토안보 트라이앵글센터의 데이비드 샌처 소장이 말했다. “IS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암시장을 차단하려면 러시아와 터키를 포함한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IS의 수입원을 차단하려고 반드시 그 단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IS와 싸우려는 나라는 경제력을 활용해 사우디 같은 중동 지역의 강대국에 극단주의 퇴치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탄카 연구원은 예를 들어 그런 나라들과 석유 수입이나 무역을 줄이겠다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나라들을 압박하면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S와의 전쟁에서 가장 힘든 측면은 이념 문제다. 동조자를 끌어들이는 이념을 근절하는 동시에 내전의 수렁에 빠진 중동 국가들을 설득해 IS 이념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엑서터대학 종교·지정학센터의 선임분석가 에마 엘 바다위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된 정책은 급진 무장단체의 지도자와 고위 간부 제거를 표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전략은 결정적 결함이 있다.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해도 알카에다를 무너뜨리진 못했다. 지도자를 제거하면 더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IS는 역사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핵심에 위치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이념은 그보다 훨씬 오래 됐다. 그런 이념을 무너뜨릴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샌처 소장은 “바로 잊고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투쟁으로 형성된 이념”이라며 “그런 이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우리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IS에 가입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엇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힘이 막강하다. 범죄 행위를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종교적 요소도 강한 힘을 갖는다. 영국의 안보 컨설턴트 겸 시빌리언의 CEO로 안보와 정보 전문 기업 저스틴 크립프는 “이런 측면에서 서방 국가가 종교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IS는 포섭 대상에게 단체에 가입하면 삶의 확실성을 얻을 수 있으며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묘한 매력에 느낀다.”

이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바이먼 연구원은 “지하다가 되려는 사람을 말리기는 매우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하다가 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만으로 이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리아 내전에 참여

한 주요 국가나 단체에 IS가 최대의 적이란 사실을 확인시키는 게 우선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IS 격파보다 궁지에 몰린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바탄카 연구원은 “아사드가 IS보다는 덜 사악하다고 모두가 동의한다면 IS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모두가 IS에 반대하며 그들을 반드시 격파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IS 격파엔 정치적,이념적 단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목표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IS의 매력에 사로지도도록 하려면 그보다 더 나은 무엇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미국은 많은 노력에도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임무는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바탄카 연구원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할 문제는 지난해 IS를 받아들이던 도시와 마을이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민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IS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을 제공해야 한다.” 또 그는 화해와 권력 재분배의 정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레아 시리아와 이라크의 온건 수니파처럼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극단주의단체를 더 나은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동맹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후 현지에서 저항세력과 싸우며 얻은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바탄카 연구원은 “이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를 몰아낸 뒤 정치적 과정에서 실패하면서 생겨난 것이 IS”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이전보다 더 사악해져 새 이름을 달고 다시 등장했다.”

IS는 1999년 이라크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자마트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라는 조직으로 생겨나 2004년 이라크 알카에다 지부가 된 뒤 2006년 이라크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일부를 결합해 이라크 이슬람국가를 결성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그곳으로 넘어가서 시리아 알카에다를 도왔고 2013년에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로 명칭을 바꾼 뒤, 2014년 6월 29일 칼라트 제체의 이슬람국가(IS)를 선포했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쿠바교회는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쿠바 사람들이 부유해진 다음에도 교회의 부흥에 감사할까 하는 걱정이다. 한 신학교 지도자는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룬 큰 성장이 앞으로 더 이상 쿠바 교회의 특징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또 하나의 도전은 도와주려 오는 외부인들의 쇄도이다. “쿠바에 내려오고 싶어 하는 새들이 많습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에 소재한 동부침례신학교의 에두아르도 곤잘레스 텔 리오 총장이 설명한다. “그들은 자기네 교리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쿠바는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플라세타스에 있는 쿠바복음주의신학교의 아니엘 마레로 바에즈 총장이 말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골라잡을 만큼 그렇게 방목이 흔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제 쿠바 교회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과테말라 대형교회 목사 카쉬루니를 비롯한 몇몇 번역복음가사들의 영상을 보고 있다. “미디어 전

쟁입니다.” 곤잘레스는 말한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쿠바정부는 여전히 기독교 출판과 언론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바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은 미국교회들과 협력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규모와 자산에서는 두 나라 교회 사이에 불균형이 심하지만, 존중 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문제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 아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서부침례교 목사가 말한다. “우리는 협력의 정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머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어바나의 감리교복음주의신학교의 에노엘 쿠피에레즈 에체바리야 총장이 말한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쿠바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쿠바교회는 세상을 향한 부흥의 모범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엇인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곤잘레스는 미국 델러스에 있는 후원교회와 맺은 협력관계에 흠뻑해 한다. 협력의 초점은 재정 후원이나 아니라 리더십 훈련에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었더라면,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성공을 하나님이나 미국의 재정 후원에 돌렸을 것입니다.” 그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쿠바 교회를 도우러 오는 미국인들이 손발 달린 달려 지 페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리 도서관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는 목사는 제안한다. 한 사회학자가 자기가 아는 외과 의사는 공식 직업보다 식당 종업원 일로 세 배나 더 많은 돈을 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몇몇 지도자들은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팀워크와 리더십 훈련이라고 CT에 말했다.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체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지도자는 말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스


처럼 행동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합니다. 위원회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카스트로 정권의 감시문화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집단 안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누가 반대편에 있는지 알을까요?” 그 지도자는 설명한다. “우리의 피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협력이란 결핍 요소입니다.”

하지만, 쿠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때는 없었다. 에두아르도 E. 페레스 라모스는 번창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 ‘에도스’를 쿠바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하는 일에 활용하고 있다. 그는 건강한 쿠바 교회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어 배포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가령, 울린 시에서 열린 최근 집회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섬, 하나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사진은 산타클라라의 감리교 캠프에서 열린 쿠바복음주의교회 전국 집회에서 찍은 것이다.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쿠바 섬 대형으로 서서 사진을 찍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 칼럼

감사를 잊지 말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주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실 때 열 사람의 문둥이가 소리를 지르며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다. 주님은 그 열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 그런데 열 사람 중에 아홉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그 중의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자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열 사람의 문둥병자는 천형(天刑)의 병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사마리아의 변두리 어느 깊은 골짜기에 수용되어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를 등진 채 저수 받고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죽지 못해 살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저들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 뵈고 병 고침을 받아 단 하루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다 죽었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일행이 여기로를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회는 이때라 싶어 열 문둥병자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때에 일제히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가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다. 이는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진단을 받으라는 뜻이다.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눈물이 솟아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열 명 중 아홉은 문둥병이 치유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각기 제 집으로 달려갔고,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절을 하며 감사를 드렸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열 사람인데 주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이때 주님은 “열 사람이 다 고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시오 병고침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눅17:11-19).

병은 고침 받아도 또 병들게 된다. 그러나 구원은 받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누구든지 작은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귀한 은총을 허락받는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하였다. 주님은 열 명 중에 한 명 유일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사례하는 것을 보시고 나머지 유대인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셨다. 19절에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다. 감사하는 믿음은 병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은총까지 받게 된다. 여기서 “네 믿음이”라 함은 그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을 암시하신 것이다.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 육신의 병 고침 받고 주님께 감사 드린 사마리아인은 영혼까지 고침을 받으므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다.

기도만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는 어린이와 같은 신자이다. 기도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성숙된 신자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놓고 기도는 한 번만 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는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배운망덕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교인 중에 가장 어린 교인은 받은바 은혜를 당연시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교인이다. 어린애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을 당연시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인간은 받을 줄만 알고 하나님은 주실 줄만 안다고 하였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주시고 용서하시며(give and for give), 인간은 받고 잊어버리는(get and for get) 존재”라고 하였다. 성숙한 사람은 받은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지 않으며 남에게 후하다”고 했다. 매사에 불평불만 함으로 스스로 못난 신자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숙한 신자, 훌륭한 신자 되기 바란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죄책감에서 해방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의 부끄러운 순간들이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순간들이 기억될 때 마다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곤 한다. 아마도 이런 과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니체는 인간은 초극 되어야 한다고 최고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살 것을 주장하였지만 그런

다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현주소다. 칼뱅이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죄의 질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더욱 죄책감을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예를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 밀라노 정원에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담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아이들의 동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로마서를 통해 회심하고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 될 수 있었다. 역시 죄책감에서 전전긍긍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 지독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다. 그는 독일에서부터 멀리 로마까지 찾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스칼라

라 계단을 올라갔다. 스칼라 계단은 일찍이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로마의 황제인 아들의 권력을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온 유물이다. 즉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르셨던 총독 관청에 있었던 돌계단이다. 그 돌계단은 총 스물여덟 개로 구성되었다. 그 무거운 돌계단을 4세기 초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옮겨오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중요한 돌계단들은 마모되지 않도록 나무로 덧입혀 놓았다. 계단 하나 하나는 예수님의 체취가 묻어 있는 것이니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싶다. 계단은 몇 계단 마다 동그란 흙을 만들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을 넣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4세기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굳은 믿음으로... 개혁자 말틴 루터도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해방받기 위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 중에 일설에 의하면 무릎으로 올라가던 중 로마서 1:17 절의 말씀이 섬광같이 깨달아짐으로 발뚱 일어나 나머지 계단을 성큼 성큼 걸어 올라갔다고 전해진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 김의환 교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도 그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서 올라갔다고 하셨다. 죄책감에서 해방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길 밖에 없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고(롬4:5), 믿음을 통한 의로 불법이 사람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이 있다고 했다(롬4:7-8). 이런 과거적인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또 한 사람 심각한 죄책감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요한 웨슬레였다.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 낙심중에 런던의 울더스게이를 걸어가던 중이었다. 그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불이 켜진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 들어갔다. 사회자가 읽는 말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죄책감에서 자유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밖에 없다. 절대로, 절대로 행위를 통한 길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작은 노력이 구원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줄로 여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싶다.

푸/른/초/장

김풍운 목사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행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여행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간 동안 지구를 여행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자들이 꼭 거쳐야 할 입국심사(immigration)와 관련하여 본문을 생각하고 적용해보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행기록이 깨끗한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과 죄를 멀리하므로 영혼을 깨끗케 해야 합니다. 너무 급해서 벨을 못 찾고 점점 숨을 힘들게 쉬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 벨을 돌려 간호사를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척이던 창 쪽 환자가 숨이 끊어졌고 시체를 밖으로 내어졌습니다. 그 환자가 죽어서 안 되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가 죽어서 자기가 창 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기뻐했습니다. 자기 침대를 창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죽을힘을 다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는데 거기엔 호수도 백조도 꽃도 아이들도 연인들도 보이지 않고 오

어느 날 밤 창 쪽 환자가 숨을 거칠게 쉬며 간호사를 부르는 벨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급해서 벨을 못 찾고 점점 숨을 힘들게 쉬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 벨을 돌려 간호사를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척이던 창 쪽 환자가 숨이 끊어졌고 시체를 밖으로 내어졌습니다. 그 환자가 죽어서 안 되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가 죽어서 자기가 창 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기뻐했습니다. 자기 침대를 창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죽을힘을 다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는데 거기엔 호수도 백조도 꽃도 아이들도 연인들도 보이지 않고 오

입국심사대에서 조사(examine)도 하지만 환영도(welcome)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환영식을 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여행자로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몇년전 쿠웨이트시티에서 중동선교사대회가 열려서 말씀을 전하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출발하여 비행기를 갈아타고 뉴욕공항에 도착하니 거의 23시간이 걸려서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입국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보던 심사관이 쿠웨이트시티에 왜 갔다가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힘들게 사역하는 중동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갔다가 오는 길이라 했더니 그가 밝게 웃으며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Home!)"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입국할 때 얼마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입국심사 (벤전 2:11-12)

1. 여권(passport)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제일먼저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권이요. 한국어권도 미국여권도 아닌 천국여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여행을 하면서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도 항상 점검하는 것이 여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모두 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면 늘 천국여권을 확인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되어야

2. 여행기록(personal record)입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면 심사관은 여권을 스캔하여 여행자에게 관한 개인기록을 읽습니다. 이 때

3. 선행기록(public acknowledgement)입니다. 있었었는데 창 쪽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치료과정으로 하루에 몇 번 일어나 앓을 수 있었고 문 쪽의 환자는 더 중환자라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에 창 쪽 환자는 호수와 백조, 예쁜 꽃들, 뛰노는 아이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나 점차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그 환자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서 미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가 죽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있었는데 창 쪽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치료과정으로 하루에 몇 번 일어나 앓을 수 있었고 문 쪽의 환자는 더 중환자라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에 창 쪽 환자는 호수와 백조, 예쁜 꽃들, 뛰노는 아이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나 점차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그 환자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서 미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가 죽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3. 선행기록(public acknowledgement)입니다. 있었었는데 창 쪽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치료과정으로 하루에 몇 번 일어나 앓을 수 있었고 문 쪽의 환자는 더 중환자라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에 창 쪽 환자는 호수와 백조, 예쁜 꽃들, 뛰노는 아이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나 점차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그 환자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서 미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가 죽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3. 선행기록(public acknowledgement)입니다. 있었었는데 창 쪽의 침대에 누운 사람은 치료과정으로 하루에 몇 번 일어나 앓을 수 있었고 문 쪽의 환자는 더 중환자라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에 창 쪽 환자는 호수와 백조, 예쁜 꽃들, 뛰노는 아이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나 점차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그 환자 때문인 것처럼 여겨져서 미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가 죽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1. PCUSA 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Div) 졸업 하신분
2.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분
3. 목사 안수후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분(부목사 경력 포함)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한국어, 영어)
5.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분

제출서류

- 1.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1부)
2. 목회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3. 설교 2편 (최근 6개월 이내 CD, 동영상, website 주소 제출)
4.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5. 추천서 2인(목사님) 반드시 자필 서명
6. 사역교회 주보 (최근 1개월분)
7. Personal Information Form (Download from : http://www.pcusa.org/resi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서류 마감

- 1. 제출 기 한 : 2016년 1월 31일
2. 서류보낼곳 : (우편접수) 29900 Brighton Court Delmar, MD 21875 : IL BAE KIM
3. 문의 : 청빙위원장 : 김일배 장로(전화 : 410-422-9266), 청빙 위 원 : 김금화 장로(전화 : 410-430-9288) Email: geumh119@hotmail.com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웹사이트:www.skoreanchurch.org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섬과 회복이 있는 기도 공간.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환경주의 혹은 환경보호운동은 매우 포괄적인 단어로서 땅, 바다, 산, 동식물, 강물, 지구 온난화, 핵실험, 생태계의 변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글은 주로 동식물에 제한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환경 보호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frame of thoughts)과 사상의 기저를 분석하되 우리가 가진 성경적 개혁주의적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평가하여 올바른 환경 보호운동을 수립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환경보호 운동 단체들
- 1) 그린피스(Green-peace) 운동
- 지구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

것으로 시작된 덕분에 전공자들과 직접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했고, 특정 동물에 편애되지 않고 골고루 관심을 두고 활동 중입니다

3)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

1980년에 설립된 동물 권익을 위한 이 비영리단체는 187명의 직원을 가진 미국의 단체로 전 세계에 그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PETA는 크게 “동물은 먹기 위한, 입기 위한, 실험하기 위한, 오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모든 동물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바탕을 가지고 PETA는 공장식 축산, 모피 농장, 동물 실험, 그리고 동물들이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반대하며 그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캠페이너

영국의회는 닉 마틴 법을 1822년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고, 미국은 1871년 동물 복지법을 제정했으며 일본과 프랑스 등은 20세기에 비로서 뒤를 따랐으며 한국에서도 법률 4379호로 동물 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 법률을 보면,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동물권 주장자와 그 사상
-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동물도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

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이 각자의 가지는 권리에도 틀림없이 차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동물권이 인권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은 동물 차별을 인종차별(discrimination)과 같은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지성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한 동물 보호단체인 PETA는 이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3) 동물권에 대한 최근의 경향들
- 최근에 동물권과 보호를 위해 움직이는 단체들에서 내어 놓은 동영상들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의 다음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ispoc0316@gmail.com

Q: 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지만 집안에서도 신앙으로 철저히 키우고 싶는데 부모로서 주로 어떤 면에 자녀들을 중점으로 훈련하고 키워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요?
-팔로스버디스 김미셀

A: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란 책에서 나오듯이 자녀들도 부모와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느 신학생이 미국유학을 가서 동부의 미국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한번은 학교 클래스메이트인 미국인 친구의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친구는 아들이 겨우 두살만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저녁식사를 하다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포크를 집어 부엌 흐르는 물에서 씻어서는 다시 그 아이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 포크를 받고는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엄마는 “say something” 뭔가 말해봐 그러자 아이가 “Thank you, Mom” 하면서 감사의 말을 몇 번씩이나 훈련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주일 성수와 십일조 드리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습관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감사하는 법 가르쳐야

처럼 배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주일성수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훈련받아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여 용돈이 생기거나 무엇이 생기면 하나 님께 어릴 때부터 십일조 드리는 것을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용돈을 그냥 주지 않고 성경을 쓰도록 하여 한 장을 쓰면 그 당시 돈으로 10원을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10원은 갸만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나 십일조, 성경읽기를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날인데도 아무 선물을 아빠에게 주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불러 “너희들은 어머니날에는 아담법석 하면서 엄마에게 선물하면서 왜 아버지날에 아빠에게 선물을 안 하나? 돈이 없 나, 없으면 아빠가 돈줄 테니 선물을 사오너라” 그러자 아빠 sorry 하며 그 날 두 아이가 저녁에 나가더니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꼭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녀가 배워야 할 도리란다.” 그 후부터 두 아들은 잊지 않고 부모의 생 일이나 부모님 날은 선물을 하며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배운 것은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효도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황성주 박사가 압환자들의 음식으로 이름생식을 만들었는데 미국 보스턴 총관의 책임자인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미국 전체 대학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딸이 그렇게 디베이트를 잘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딸에게 매일 저녁에 5가지 감사제목을 찾아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은 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였는데 그 딸은 감사를 배워 감성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 개발되어서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생각내어 감사하자 뇌가 발달하여 지적 능력이 뛰어나 디베이트를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환경 보호운동에 대하여(상)

색 평화(Green-peace) 운동은 전 세계 32개국에 43개의 지부를 둔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로 이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대기, 해양, 수질, 토양 오염 등 모든 종류의 오염을 막고자 합니다. 초창기에 그린피스는 세계 각국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적 극적이고 매우 공격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쳐서 사람들로 부터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죽음까지 무릅쓰고 핵 실험장에 뛰어들어 반핵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무차별적인 고래 사냥을 막기 위해 고부보트를 타고 대형 포경선에 대항하기도 했으며, 바다표범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대기, 수질, 산림, 토양 등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녹색 생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2) 세계 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ldlife Fund)
- 야생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에는 자연 보호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야생동물이 아니라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campaigner)들의 여행으로 채식홍보, 모피 반대 시위,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4) 동물해방 전선(ALF; Animal Liberation Front)과 시 셰퍼드(Sea Shepherd)
- 1976년 영국에서 동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로 비합법 행동도 불사하는 과격파 테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셰퍼드도 미국의 해양 동물 보호 단체로 미국과 호주에 본부가 있으며 일본의 상업포경을 반대하며 매우 과격하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5) 한국의 환경 보호운동의 단체들
- 한국에는 환경 수호운동 연합회(<http://forgreen.org/user/>), 환경 운동연합(<http://www.kfem.or.kr>), 환경 보전협회(<http://www.epa.or.kr>), 환경 정의 시민연대(<http://www.eco.or.kr>) 녹색환경운동모임(<http://www.greenem.or.kr>), 환경재단(<http://www.greenfund.org>) 등이 있습니다.

- 2. 동물권
- 1) 동물 보호법

람들과 동일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에게도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호주의 철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1975년에 발표한 동물 해방이란 책은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있어서 권리라는 이론적인 사상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종 차별(speciesism)”라는 용어를 대중화 하였는데 이 말은 동물을 착취하듯 대우하는 인간 우월주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어는 윤리적인 대우를 인간 이외의 여타 다른 생물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기를 주장해왔고 이런 그의 주장은 최근의 동물권 보호단체인 PETA의 기반이 되고 큰 후원과 지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논쟁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만이 선이나 도덕적 행동의 측정 수단이라는 공리주의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른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에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그들은 분명히 동물과 인

같은 동영상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동안 죽어가는 것들”, “우랑 우탄 겨울 실험 프로젝트”, “도살 직전 돼지들의 고통을 담은 동영상”, “당신이 마트에서 산 ‘방사 유행란’은 초원에서 뛰놀던 닭이 낳은 달걀이 아닐 수도 있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상징하는 이 한 장의 사진”, “학대받던 서커스 곰이 25년 만에 자유를 찾다”, “다이지 마을의 돌고래 학살을 항의하러 간 ‘더 코브’의 출연자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할로 고양이 죽인 수의사, 처벌 받는다”, “유기동물을 동물 가게 진열장에 넣었다”,

- 4) 동물권에 대한 찬반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축을 농장에서 밀집사육을 통해 키워내고 도살하는 행위나 합성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거나 사냥하는 일, 세제나 화장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 독성 실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거나 동물을 잘 돌본다는 것이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마니푸리(MANIPURI)



마니푸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의 메이테이(Meithei)로도 알려져 있다. 마니푸리인들은 주로 인도 동북부의 마니푸르 주에 있는 마니푸르 계곡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마니푸리인들이 인접한 서벵갈 주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도 살고 있다. 마니푸리인들은 몽골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티벳-버마 어계에 속하는

메이테이어를 사용한다. 마니푸리인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산지족들과는 달리 힌두교 관습을 따른다. 마니푸리 종족은 결혼과 정치적 지배를 통해서 최소 7개의 공동체가 합쳐진 결과로 발전했다. 7개 부족의 동맹은 하나의 왕국을 이뤄 거의 2천년 동안의 침략을 견뎌왔다. 1824년, 마니푸리족은 미얀마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도 정부가 행정권을 갖기 전에 영국은 노예제를 없애고 이 지역에 길을 닦았다. 마니푸르는 1972년에 하나의 주가 됐다.

삶의 모습

힌두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마니푸리인들은 고기를 먹었고, 소로 제사를 지냈으며, 사람 사냥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마니푸리인들은 (생선을 제외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알코올음료를 마시지 않고, 타락을 금하는 엄격한 규율들을 지키며, 소를 숭배한다. 그들은 또한 엄격한 힌두의 카스트(사회계층) 제도에 속해있다.

마니푸리인들에게 힌두교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들은 브라만 이주자들이었다(브라만은 힌두의 사제와 학자 계층으로 가장 높은 계층이다). 브라만들은 마니푸리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고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하였다. 오늘날 마니푸리인들은 스스로를 상위 카스트의 일부로 생각해 주위에 있는 하위 카스트 부족들에 대하여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90% 정도의 마니푸리인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7개의 씨족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씨족 내에서의 근친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흙을 바른 갈대루이은 벽으로 이뤄진 집들은 나무나 대나무 막대에 세워지며 지붕은 이엉이나 양철로 돼있다.

대부분의 마니푸리인들은 벼농사를 짓는다. 그들은 또한 사탕수수, 담배, 겨자, 과일들, 야채들을 생산한다. 인덱스에 팬이질을 해결단식 논밭을 만드는 일은 흔하다. 그들이 숲에서 얻는 주요한 생선품은 티크(재목)와 대나무다.

2차 대전 중 마니푸리인들은 전쟁과 현대 기술 세계에 노출됐으며 서양식 교육으로 인해 무지와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마니푸리의 언어인 메이테이어는 이 지역에서는 상업과 무역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마니푸리인들의 의상은 디자인이 특이하고 여자들은 손으로 베를 잘 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마니푸리인들은 말을 사육해 인도의 국가적 경기인 폴로에 말을 공급한다.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에는 하키, 보트 경기, 연극공연, 춤 등이 있다. 마니푸리 민속춤은 다른 인도 춤과는 달리 고전적인 춤이며, 손의 움직임이 흐르는 듯 흔들리면서 화사하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을 추며, 춤에는 나레이터의 설명이 있고 합창이 어우러지는 드라마다. 주제는 보통 힌두의 주신인 크리쉬나(Krishna)의 생애 이야기다.

신앙

마니푸리인들은 400년 전에 힌두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그들이 전통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힌두교에서는 몸이 죽었을 때 혼이 동물이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윤회한다고 가르치는데, 살아있을 때 모든 행실이 다음 윤회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힌두교의 목표는 이러한 환생과 고통의 순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크리쉬나와 같은 힌두교 신들을 숭배함과 동시에 마니푸리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신과 영혼들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사니마히"(sanimahi) 종교의 신은 뱀의 형체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대 15개의 선교단체가 마니푸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니푸리인들의 1%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지친 영혼 달래려..." IS 위협법은 기독교인 예배 공개

IS의 말살 계획 속에도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유튜브로 공개됐다. IS는 이라크 북부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을 점령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인들이 모여 예배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한 것이다.



유튜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 기간 예배 모습"이라며 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에는 지친 표정의 교인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교인들 사이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도 보인다. IS의 위협 속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슬람국가(IS)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 세력이다. IS는 모술과 니네베, 카라코시 등 이라크 북부 기독교인들의 집단 거주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 점령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거나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

엔네스티는 "IS가 이라크 북부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에게 인종 청소와 자행하고 있다"며 "시민 보호에 국제 사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군건한 신앙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관예배가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손명순 여사, 차남 김현철씨 등 유가족을 비롯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극동방송 사장 한기봉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기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설교,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다.

장 목사는 기도에서 "김 전 대통령은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도 일생을 하나님만 두려워한 장로였다"며 "그가 보여 준 사랑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십자가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화합과 통합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간구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주제로 설교한 김장환 목사는 1954년 만 26세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후 3선 개헌에 반대하며 평생 반독재 투쟁의 활로를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을 회고하며 고인의 리더십과 굳건한 신앙을 기렸다.

김 목사는 "김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의회직 제명, 신군부의 가택연금에 저항하는 23일간의 단식투쟁 등 공박의 순간 속에서도 이사가 41장 10절을 불독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또 수차례 청와대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일화를 소개하며 "재임 기간 중에도 매 주일 목사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인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김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내려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자"고 권면했다.

김 전 대통령의 천국환송예배는 김장환 목사의 집례로 26일 오전 10시에 드려졌다.

미국내 '50대 대형교회' 선정

새들백교회, 포터스하우스교회,레이크우드교회 등이 뉴스맥스 선정 '미국 내 50대 대형교회'에 뽑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조니 무어 편집자가 공개한 이번 순위는 교회의 규모보다 지도자들의 명성, TV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빈도, 출판물, 대중의 의견, 전체적인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매겼다.

무어는 "대형교회는 21세기의 영적인 현상 중 하나다. 주일예배에 약 5,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했다.

1위는 캘리포니아 레이크포리스트에 소재한 새들백교회가 차지했다. 무어는 "만약 여러분이 10명의 목회자들에게 물어 보면, 그들 중 8명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로 톱 워렌 목사를 꼽을 것이다. 워렌의 사회적 영향력은 기독교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무어는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에 이은 두 번째 베스트셀러이다. 그는 또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왔다. 대통령, 국무총리, 목사, 연예인 등이 그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수 년 동안 교계 인사들은 워렌 목사에 대해 '복음주의계 교황'이라고 농담을 했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교황이 '세계가족회의'에서 워렌 목사를 기조연설자로 초대했을 때는 누구도 더 이상 이 같은 농담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위는 텍사스 델러스에 소재한 포터스하우스교회였다. 이 교회는 T.D. 제이크스 목사가 이끌고 있다. 제이크스 목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프로듀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이며, 전 세계 교인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기도 한다. 초교파인 그의 교회에는 약 3만 명이 출석한다.

무어는 "약 5,620평의 델러스 예배당에는 약 4,500만 달러(519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이를 갚는 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스타디움에서 한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14만 명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3위는 휴스턴에 소재한 레이크우드교회다. 이 교회의 담임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전도자이자 작가다. 레이크우드교회의 TV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가 높아서, 교회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을 때 시리우스XM 라디오방송국 전체를 얻기도 했다.

이 밖에 시카고의 윌로우크릭교회, 10만 명이 출석하는 오클라호마의 라이프교회, LA와 뉴욕에 소재한 힐송교회와 각각 4, 5, 6위를 차지했다. 무어는 "힐송교회는 모교회가 호주 시드니에 있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있다. 12개의 국제적인 도시에 세워진 힐송교회의 예배에는 매주 약 10만 명이 이상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PCUSA 키스키미네타스 노회, "결혼은 남녀간 결합" 현의안 상정



PCUSA 2016년도 총회가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지금까지 현의안 22개의 PCUSA 총회 현

의안 중 결혼의 정의를 다시 '남녀간의 결합'임을 명확히 수정하는 현의안 키스키미네타스(Kiskiminetas) 노회에서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현의안은 올해 '두 사람간의 결합'이라고 변경된 결혼에 관한 W-4.9001의 문구와 관련,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복수시킬 것과 예식에 관한 W-4.9003의 문구에서 '커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변경할 것을 청원했다.

또 예식과 관련, W-2.4010, W-3.3503에서 '혼인 예식에서 커플은 상호약속을 교환함으로써 결혼한다'고 간략히 적힌 문구도 "결혼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표현으로서의 결혼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 예식으로 거행된다. 목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 예식의 인도자들로 초청될 수 있다. 혼인 예식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만찬에 초대 받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혼인 예식은 당회가 인

가하면 주일 예배 시에 치루어질 수도 있다. 이 예식은 예배 순서 중 말씀 선포 후에 와야 한다. 혼인 예식 후에 성만찬이 집행될 수 있다"고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이 현의안은 W-4.9005, W-4.9006 등 결혼과 관련해 '커플'이라고 설명된 규정을 모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변경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또 현의안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체 결혼을 통해 연합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등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인 것과 하나님 앞에 신성한 예식임을 강조하는 강력한 문구들을 교단 헌법 곳곳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현의안을 상정한 미국 노회인 키스키미네타스 노회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당신의 작은 사랑으로
세상은 더욱 따뜻해 집니다!"

한인노숙인쉼터
<나눔의 집> 쉼터 기금모금

다너 컨서트

FUNDRAISING DINNER CONCERT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저녁 7:00
장소: 대동연회장 (DAEDONG MANOR)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1부 환영인사 및 만찬
2부 공연 3부 경품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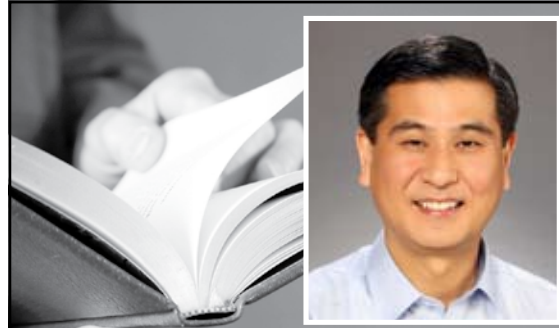
출연 | CBSN 합창단, Randy Brooks, 이영주, 김창숙
뉴욕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 앙상블
뉴욕필그림 무용단

ADMIT \$100

후원 식사티켓을
소지하신 분만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목사) 주관 | CBSN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목사)

후원/티켓구입 문의 | 718-683-8884 / 347-538-1587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6)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1)-b

질문: 속사도 시대가 마감된 313년 이전에 초대교회가 출현한 에비온파,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의 이단 사상은 어떠하였나?

■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는 마르시온(Marcion, ?-160)의 기본 사상이었다. 그는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의 부친은 그의 부도덕한 행실을 용납하지 않고 출교와 함께 그를 고향에서 쫓아냈다. 케르도(Cerdo)라는 영지주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위에, 자신의 주장을 가미하여 독특한 신학체제로 발전시켜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이단이다.

마르시온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사상적 특징은 구약과 신약의 대립구도에 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며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점으로 채워져 있다. 그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과 같이 실수도 범하고 번덕을 부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대조되는 신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요소가 완전하게 배제된 복음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 것이다.

마르시온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그가 복

음을 제시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르시온은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는 결함이 많은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가현적 존재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

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항상 영지주의가 지닌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던 그는, 이 책을 통하여 마르시온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순교자 제스틴도 "첫번 변증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마르시온은 "악마의 도움을 힘입어 신성모독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한 분인 것을 부정하게 하였다"(26장).

마르시온을 추종하는 자들은 3세기까지 초대교회를 대항하며 힘

타누스는 회심하기 전까지 이교 제사장으로서 활동하였다. 그가 활동을 시작하던 2세기 중반에 교회는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였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 교회 가 시작된 지 1세기 이상이 넘으면서, 과거의 뜨거웠던 열정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많이 사라졌다. 사도들이 전수해준 정통 신앙이 영지주의 또는 마르시온주의 등의 도전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몬타누스는 자신 때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하였다.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할 때 경험한 것이다. 그는 두 여자 선지자들에게 이런 상해를 가르치며, 성도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체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단의 신비주의적 행동이 곧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초대교회는 몬타누스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반응을 분명히 보였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체험이 곧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의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도적 신앙과 성경의 규범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여겼다. 검증하지 않은 여인들이 성령은사주의적 신앙을 퍼트리면서,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는 행위를 저

되는 것이므로, 성도들의 유일한 규칙과 규범이 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성경의 정경화가 가속화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 24:5, 23-26; 고후 11:4, 13-15; 벨후 2:1; 3:16, 요일 4:1-3

이단은 절대대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먼저 내어놓고 접근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다가, 결국 어느 순간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자주 유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요즘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와 같이 잘 알려진 이단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공격해야 한다. 이단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이단 사상을 추적해갈 수 없다. 도리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도적 신앙과 성경의 진리에 더욱 굳세게 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상대가 거짓이란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랑한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면 된다. 이단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능통하여야 한다. 이단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그 복음의 파워를 친히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신성을 부인하기에,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야 한다. 최선의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란 말이 있다.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이단대처는 사도적 신앙과 성경의 진리에 더 굳세게 서는 것 이단속출로 신약의 정경화 추진...최선의 수비가 최선의 공격

다. 사도적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아가서 성육신이나 재림을 부정하였다. 신약으로부터 구약을 단절하려는 신념을 불타던 마르시온은, 최초로 정경화를 시도하여 신약성경을 만들었다. 그는 누가복음을 유일한 복음서로 받아들였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의 인용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10편을 정경으로 엄선하였다.

마르시온에 대한 교부들의 비판은 대단하였다. 사실 그의 글은 모두 유실되었지만, 그의 사상을 비판한 교부들의 글이 인용되어 보존되었다. 그만큼 초대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이단이었기 때문이다. 교부 터툴리안이 기록한 "마르시온에 대하여"는 그가 남긴 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마르시

을 규합하다가, 4세기가 되어 마니교에 흡수되었다. 초대교회는 이들을 대항하며 더욱 확고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신약의 정경화를 추진시켰다.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 관계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려는 신학적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나아가서 기록론과 구원론에 대한 사도적 신앙을 확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나아가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Montanus, 2C)는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부 아시아 지역인 브루기아라는 도시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난히 광적인 신앙심을 지녔으며, 흥미롭게도 몬

의지를 지닌 것이다. 성령의 직접적인 강력한 역사가 사라지면서 형식주의가 성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고 선포하며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을 버리고 자신을 돕던 두 여인, 막시밀라와 프리스카라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도 교회를 향한 예언을 허락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소위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들의 영적체험은 교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졸도를 하거나 입신하여 자신도 모르는 황홀한 세계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몬타누스가 회심

극적으로 거부하였다.

초대교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교부 터툴리안은, 초기에 몬타누스를 이단으로 규정한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몬타누스주의의 가르침을 수용하였다. 제롬은 터툴리안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 로마교회의 영적 나태에 대한 애석함을 그들의 실천적 교리로 채우려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대 교회가 분명한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초대교회는 몬타누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규명하고 정통신앙을 지켰다. 그들의 지나친 성령운동은 교회에 혼동을 가져왔지만, 교회의 생명은 잘 정리된 신앙 체계와 교리 이상의 것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의 생명은 역동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3)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백세가 될 때까지도? 백 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붙잡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감각부속속이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보

았는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아내 사라는 76세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롬4:19-20).

정말 그랬을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었는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바

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고 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믿음의 조상답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백 세가 되어"에 주목하라. 아브라함이 백 세가 되도록이 아니라, 백 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백 세가 되었을 때라는 말이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9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대접했다. 그들은 잘 대접받고 돌아

가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피식 웃고 말았다. 90세가 된 할머니인데 아들을 낳겠다니 무슨 그런 해괴한 일이 다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는 순간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사자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들을 주실 줄로 믿었다. 그래서 1년 동안 믿고 기다렸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았을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보아야겠다고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몸의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롬4:19)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쿠바교회, 열정과 자생력 소멸될까...

(3면에서 계속)

쿠바 정부의 여행규제는 선교사 파송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교회들은 비공식적인 의료선교(의사는 쿠바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집단의 하나)를 택했다. "이제 문이 열

렸습니다." 서부침례교회 지도자는 말한다. "우리의 꿈을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장애 요인이다. "우리에게는 선교사를 파송할 돈이 없

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람은 있습니다." 곤잘레스는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큰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침례교선교프로그램 '열방을 향한 쿠바인들'은 250명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의 디렉터인

카를 레스타일은 말한다. "다른 나라들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배우고, 거기에 우리의 쿠바 사(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곤잘레스는 지난 6월 남침례교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미국의 "영적 위기"를 토론하고 쿠바가 어떻게 미국 교회를 도울 수 있을지 토론했

다고 말한다. "아마도 쿠바가 미국에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말한다. "미국은 개신교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쿠바교회 지도자들은 라 아페르투나에 고마워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에 대비하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누군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쥐 보십시오." 한 신학교 지도자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 | | | | | | |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월-토) 오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515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벤델교회 주일 1부예배(현):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현):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현):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대위헌법: 오후 1:30 금요기도회: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벽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위헌법: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0:00 (8월) 연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
|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08(팩스)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rlc.org |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 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42-0288, Fax: (215)42-93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찬 양 예 배: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8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acrc.org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찬양회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860)8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

리더십 코멘터리 (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감사 건망증에 빠진 리더

2014년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 아침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인 여성작가의 기고문이 미국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화제의 기고문은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면 탐으로 실린 '질면조 먹고, 미국인 되기(Eat Turkey, Become American)'라는 글이다. 이 글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작문을 가르치는 작가가 기고한 것으로서 한국전쟁 직후 미국에 온 부모가 추방의 위기를 딛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던 역경의 세월을 추수감사절 에피소드와 함께 다룬 내용이다. 이 작가는 부모가 1950년대 미네소타 북부의 소도시인 '히빙'에서 체류비자문제로 추방 위기에 직면했지만 주민들의 탄원과 지역 정치

60년 전보다 더 행복할까? 오히려 더 감사할 줄 모르며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닐런지?

1690년 증기기관을 발명해 낸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해 늘 감사한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고,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다."

Thanksgiving Day의 성경적인 의미

Thanksgiving Day(추수감사절)는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 '감사 실종시대' 속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통한 행동의 은총' 누리길

인의 도움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고문은 부모가 왜 그토록 추수감사절을 정성껏 지냈는지 깨달은 것을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필치로 전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추수감사절 아침, 너무나 감동을 주는 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느끼게 해준다"는 등의 댓글들을 달면서 찬사 일색의 호평을 쏟아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네티즌은 "추수감사절은 풋볼경기를 보고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다. 이 작가의 좋은 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감사 건망증에 빠진 현대인

감사 건망증에 빠진 현대인들이 많다. 어떤 어머니가 일곱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갔는데, 이웃집 부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다. 아이는 사과를 열면 받았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물으니,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사과 껍질 벗겨주세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감사건망증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조건이 72가지가 있었고,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활조건은 5백가지이며 절대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과연

있었는지 오히려 하나씩에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3:6-7)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추수를 기대하며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준다고 다 잘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가뭄이나 홍수, 또한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농경의 산물을 식량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씨앗을 심어 수확물을 거두는 일은 이처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농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온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를 때

호레이시오 스페포드(H. G. Spafford)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 노스웨스트 장로교신학교의 이사, 운영 위원이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D. L.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으며, 무디교회의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런데 그는 전염병으로 첫째 아들을 잃고 그 다음해인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인생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

스페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드 드 아브로는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페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따라갈 생각으로 배에서 내렸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뉴욕항구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은 잠이 든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 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 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받은 스페포드는 많이 갑갑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은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부인을 데리러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다. 배가 딸들이 잠긴 물위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 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페포드는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다. 이 곡이 바로 저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삶에도 스페포드와 같은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무슨 이유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감사를 모르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지난 1년 동안 만나고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란다. '감사 실종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감사를 통한 행동의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이메일: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무화과 나무

우리 집 뒷마당에는 과일 나무가 몇 그루 있다. 해마다 큼직한 과자가 주렁주렁 열리는 과자 나무도 있고 몇 년 전 내가 심은 살구나무도 있다. 과자는 스무디를 만들어 먹지만 아이들은 특이한 향 때문에 안 좋아해서 늘 냉동칸에서 구박 받는 것이 과자 열매다. 살구나무는 아직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무슨 나무인지 이름도 모르는 나무가 어느새 한 쪽 구석에서 훌쩍 커져서 무성할 뻔이 여기 저기 떨어지는 바람에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잔디 깎는 아저씨에게 그 나무 좀 베어 버리자고 했더니 과일이 열리는 나무라고 하였다. 무슨 과일나무인지 몰랐더니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화과를 좋아해서 성경 말씀이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무화과를 따 먹으려다가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언제 무화과가 열릴까 기다렸다. 한 해는 조그만씩하게 잔뜩 열리더니 익기도 전에 땅에 다 떨어져서 열여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아마 첫 해여서 그런가보다 하고 계속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삼 년 정도를 기다려도 열매가 아예 달리지 않았다.

옆집에는 무화과나무가 없었는데 언제 나무를 심었는지 물어 우리 집 쪽으로 무화과나무가 가지를 뻗으면서 작은 열매들이 조롱조롱 달렸다. 옆 집 아저씨에게 우리 집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열린다고 그랬더니 무화과는 물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아마 물이 모자란 것 같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물도 따로 준 적이 없지만 비료도 한 번 준 적이 없었다. 내가 할 일도 안하고 열매 맺기만 기다린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영양제도 좀 주고 물도 좀 더 주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열매 안 맺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열매 안 맺는 우리 집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엄마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농담을 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옆집과의 펜스가 낡아서 새로 하느라 견적을 내야 했다. 견적 내러 오신 분이 무화과나무를 보더니 본인이 이전에 가드닝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열매를 안 맺으면 밑동을 잘라 버리고 새로 나오는 줄기를 따서 따로 심어야 한다고 친절하게도 그 큰 나무 밑동을 잘라주고 가셨다. 그때만 해도 새로 나오는 줄기를 다른 쪽에 심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펜스를 새로 하다보니까 무화과 뿌리가 너무 깊어서 옆집 콘크리트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고 하셔서 아예 뿌리를 다 베어버렸다. 결국 매해 지지부한 앞사구 치우고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가지들 전지하느라 애만 쓰고 기대하던 무화과는 한 번도 먹어 보지도 못한 채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을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양육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삼 년, 오 년, 십 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보여 드릴 수 없다면 우리도 일단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이다. 삼 년이나 참고 기다린 농장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니 한 해만 더 비료도 주고 기다려 보자고 하실 때 그 분을 실망시키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 드리고 싶다.

이메일: lpyun@apu.edu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실고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2015년 1월 | 5월 | 11월 | 2014년 1월 |
|---|--|--|--|
| 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평화회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함동동인교회) 남부시절 재지부회 과천교회 (조현수목사) 16일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 1월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8일 ~ 17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21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27일 하늘대성교회 (오영택목사)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1월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5일 신년성경학교 (이동우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29일 마침교회 (윤영미목사) 29일 ~ 30일 드림교회 (정준목사)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강서제일교회 (전준남목사) | 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평화회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침례중앙교회 (김영우목사) 오산리 회자실기원 금식기도원 우리들의교회 (김종현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
| 2월 | 6월 | 12월 | 2월 |
| 2월 ~ 1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 (34차) 16일 ~ 19일 시립사관교회 (배민성목사) 22일 ~ 22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3일 ~ 25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 1월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5일 ~ 17일 온양감리교회 (노광현목사) 21일 ~ 24일 예유림교회 (류영희목사) 22일 ~ 24일 (함동)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 1월 ~ 2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3월 ~ 6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 3월 | 7월 | 1월 | 3월 |
| 1월 ~ 3일 예수비전교회 (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신명수련회 9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 (강화)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6월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 19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6일 ~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 (홍경순목사) | 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평화회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침례중앙교회 (김영우목사) 오산리 회자실기원 금식기도원 우리들의교회 (김종현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 20일 ~ 2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1일 ~ 22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3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 4월 | 8월 | 2월 | 4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4월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 2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평화회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침례중앙교회 (김영우목사) 오산리 회자실기원 금식기도원 우리들의교회 (김종현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 3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0일 ~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종일목사) 17일 ~ 19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23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
| 5월 | 9월 | 3월 | 5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9월 ~ 1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일 ~ 12일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3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0일 ~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종일목사) 17일 ~ 19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23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 5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1일 ~ 11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2일 ~ 12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3일 ~ 13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4일 ~ 14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5일 ~ 15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6일 ~ 1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7일 ~ 1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8일 ~ 18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9일 ~ 1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0일 ~ 20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1일 ~ 21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2일 ~ 22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3일 ~ 23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4일 ~ 24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5일 ~ 25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6일 ~ 2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7일 ~ 2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8일 ~ 28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9일 ~ 2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 6월 | 10월 | 4월 | 6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10월 ~ 1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4월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 6월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 7월 | 11월 | 5월 | 7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1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5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1일 ~ 11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2일 ~ 12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3일 ~ 13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4일 ~ 14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5일 ~ 15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6일 ~ 1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7일 ~ 1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8일 ~ 18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9일 ~ 1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0일 ~ 20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1일 ~ 21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2일 ~ 22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3일 ~ 23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4일 ~ 24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5일 ~ 25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6일 ~ 2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7일 ~ 27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8일 ~ 28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9일 ~ 2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 7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 8월 | 12월 | 6월 | 8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12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6월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8월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 9월 | 1월 | 7월 | 9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7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9월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 10월 | 2월 | 8월 | 10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2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평화회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침례중앙교회 (김영우목사) 오산리 회자실기원 금식기도원 우리들의교회 (김종현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 8월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10월 ~ 1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 11월 | 3월 | 9월 | 11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3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9월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1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 12월 | 4월 | 10월 | 12월 |
|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미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캘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 4월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 10월 ~ 1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2월 ~ 12월 나사렛성경대학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12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0일 ~ 10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1일 ~ 11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2일 ~ 1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3일 동주교회 (윤성우목사) 14일 ~ 14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수료식회 (송우림목사) 15일 ~ 15일 마침교회 (이철호목사) 16일 ~ 16일 함동(대백)시절 연합성회 17일 ~ 1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



목회서신

양보와 타협은 없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므로, 이제 미국의 50개주가 모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회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후폭풍, 즉 동성결혼의 주례와 교회 사용허가 등에 대한 교회법 개정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교계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후폭풍, 다음 타깃인 일부다처제가 유타 주를 중심으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고, 다 부일제, 이부이처 등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상의 여인과 연하의 남자간의 결혼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고, 유부남과 유부녀의 혼외정사, 형부와 처제, 형수와 시동생, 남매간, 부녀간의 근친상간, 겁사 등 불미스러운 가정파괴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함심한 것은 플로리다에서 전자제품 마케터로 일해 온 라이언 후를러는 자신이 기르는 수컷 반려견과 결혼하겠다고 글을 게재한 후 직장에서 해고되었고(일간플러스, 2015.7.10), 네델란드의 도미니크 레스비넬(41세)이라는 여성은 8년 전 자신의 반려 고양이와 결혼했지만, '고양이 남편'이 신장병으로 19년 만에 죽자, 이번에는 함께 살기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반려견과 재혼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는 '메리유어펫'(Marryyourpet.com)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열어 놓고, 반려동물과 주인의 결혼 신청을 허가해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는 것입니다(주간중앙, 2015.7.25). 동물을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건 좋지만, 인간이 반려동물과 성적관계(수간獸姦, Bestiality)를 갖는다는 것은 천벌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 최고의 결작품은 인간 창조,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였습니다. 천히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이성간엔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곧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불변의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에 의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남색과 일부다처, 수간, 그리고 혼외정사와 근친상간 등이 만연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남색(게이)과 동성애(호모, 레즈비언)를 금하셨고, 이를 어기는 남색인과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창19:5, 레18:22, 20:13, 사19:22, 왕상14:24, 롬1:24). 그리고 짐승들과 교합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출22:19, 레8:23, 20:15-16, 신27:21). 하나님은 특별히 도덕적, 성적인 타락의 경우는 예외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아의 홍수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심판, 로마제국의 멸망, 폼페이시의 최후 등이 결국은 도덕적, 성적 타락의 결과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결과로, 천벌이라고 불리워지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가 만연하게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롬1:26-27).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들은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차원에서 저들

을 받아들이고, 선대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가 대상이므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가르침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굽히지 않는다면, 저들을 영접하고 선대하며 사랑할 명분이 없습니다. 전도차원에서 저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질을 호도, 왜곡하고, 희석시킬 뿐입니다. 본질상 동성애와 동성결혼, 남색(게이), 수간, 일부다처 등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저들과는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영원불변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OC교협 신임회장에 민승기 목사

제25회 정기총회, "전통계승 아름다운 교협으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 제25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갈보리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열린 제25대 신임회장에 민승기 목사를 선출했다.



OC교협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민승기 목사는 "OC교협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교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교계위상이 많이 추락했는데 OC교협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이 발산되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OC교협과 커뮤니티를 섬기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총회에 앞서 열린 1부 개회예배는 수석부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 부회장 이호우 목사가 기도했으며, 윤우경 부회장이 성경봉독 했다. 이어 이사장 엄영민 목사가 '연합의 축복'(전4:9-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중경회장 정

영수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회의는 회장 김기동 목사의 사회로 시작,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의록 서기임명, 회소채택, 절차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회계보고는 총 수입 85,035.13달러, 총지출 82,485.31달러 그리고 차기년도 이월금 2,549.82달러로 보고했다. 신임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민승기 목사 △수석부회

장: 이호우 목사 △대외부회장: 윤덕근 목사 △기획부회장: 송규식 목사 △목회부회장: 이서 목사 △신학부회장: 조형수 목사 △교육부회장: 신현철 목사 △영성부회장: 이태종 목사 △총신도부회장: 윤우경 목사 △총무: 테드황 목사 △서기: 박용일 목사 △부서기: 노상철 목사 △회계: 서준석 집사.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 성황 '스마일' 주제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스마일 주제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장수 목사)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이종희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잘 준비해주셨다. 이번 기회로 발달장애 친구들이 기쁨과 웃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한다. 각 교회 선교단체 섬기면서 남가주 봉사자 부모들이 하나 되고 희망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 축제는 주관처인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비롯, 동양선교회, ANC은누리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살림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물렌동산장애인선교회 등 각 교회 장애인부와 장애인선교단체들이 참가했으며, 각 부스별로 마련된 놀이공간과 체육관에서 즐거운 댄스 타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영성 운동에 박차 가하자!" 제 36회기 필라교협 새 임실행위 조직

"화합하는 교협 신뢰받는 교협"이란 표어를 내걸고 출범한 제 36회기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안문균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8시 제1차 정기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브니엘 장로교회(담임 정희권 목사)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예배에서는 회장 안문균 목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격려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회무 처리에서는 정규 사업으로 △성탄축하: 12월 △신년하례: 1월 △부활절 새백일합예배: 3월 △광복절: 8월 △복음화대회: 9월 △정년회: 9월로 결의하고, 기타 특별행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11월 24일(화) 오후 1시30분 귀니드 양로원 예배 △성탄축하 찬양예배 12월 13일(주) 오후 7시 영생 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 △신년 감사예배는 2016년 1월 10일(주) 오후 5-7시 기쁨의교회(담임 박성일 목사)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필라교협 총예산은 60,000달러로 통과시켰으며, 불루벨한인교회 담임공석, 소명성결교회 사제, 필라참빛교회 사제, 한인필라교회 담임은 이용은 목사로 수정하기로 했다. 제 36회기 임실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 △회장 안문균 목사(주님의교회) △제1부회장 김성철 목사(예승장로교회) △제2부회장 최승찬 장로(영생장로교회) △총무 김영천 목사(필라한미교회) △서기 정희권 목사(브니엘장로교회) △부서기 김병일 목사(포도원교회) △제1회계 서영식 장로(몽고메리교회) △부회계 김중찬 안수집사(필라한인침례교회) △감사 김창만

목사, 안상식 장로. ▲실행위원: 강승호, 고택원, 김정일, 김창만, 김풍운, 박도성, 박동배, 박성일, 박태문, 이대우, 이용걸, 전영현, 차명훈, 최해근, 최희관, 호성기, 황준석(이상 목사), 서영식 장로 외 3인, 추후 발표. ▲상임이단대책위: 김풍운, 김창만, 박동배, 박도성, 안문균, 이대우, 전영현, 조병호, 강학구, 호성기(이상 목사), 추후 추가(교단별 안배). ▲각 분과 정, 부위원장: △전도: 호성기, 박태문 △신학: 김풍운, 조진모 △대내: 김창만, 강학구 △대외: 황준석, 박동배 △조국통일: 전영현, 박정호 △정보통신: 이대우, 이경중 △홍보: 강승호, 장덕삼 △음악: 박도성, 주은재 △청소: 박성일, 김성준 △체육: 고택원, 정인원 △평신도: 최해근, 김치수 △재정: 서영식, 김중찬(이상 목사). ▲자문위원: 고인호, 김만우, 백형무, 현인택, 김대성(이상 목사), 박상구, 박상익, 신해균, 이건상(이상 장로). (기사제공: 필라교협)



조지아해병목사회 6차 모임에서 홍문공 목사가 선교보고 및 설교를 하고 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힘써야 할 지상명령" 조지아해병목사회 제 6차 모임에서 선교보고와 간증

조지아해병목사회(GMCCA, 회장: 유지화 목사)가 지난 22일 스와니 지역에 있는 류영호 목사(에블랜타노인대학 학장) 자택에서 제 6차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협동총무 김민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서기 박관영 목사가 기도하고,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아프리카 가나(Ghana)에 18번째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홍문공 목사(사랑침례교회 사무)가 선교보고 및 간증과 함께 설교해(행4:1-20, 고전9:24-27) 참석한 회원 모두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년 전 5개의 선교우물을 파준 후 이번에도 선동역자 장영수 목사와 함께 우물 3개를 파주고 왔다는 홍문공 목사는 "전도와 선교는 성경의 귀결이자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반드시 힘써야 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자랐던 나는 중학생 때 예수를 만나는 날부터 어두웠던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말끔히 씻어낼 수가 있었고 그 은혜가 너무 커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으나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의 열정으로 늘 마음이 갈급하다"고 강

조하며, "우리 조지아해병목사회 회원 목사들도 해병 특유의 그 굳건한 정신을 살려 선교와 전도에 남은 삶을 아낌없이 불사르는 사역자가 되기에 힘쓰자"고 말했다. 회장 유지화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고문 배창섭 목사의 식기도 후,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회원들은 류영호 목사 가정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코이노니아의 사랑을 나눴으며, 이어 류복자 사모의 영여성경 암송에 얽힌 은혜의 간증으로 훈훈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지아해병목사회는 새로 제작된 주소록을 배부 받고 앞으로 회원들 간에 더욱 영적으로 결속돼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진하기로 결의했다. 차기 모임을 12월 19일(토) 오후 5시 30분에 갖는다. 조지아해병목사회 가입 및 문의는 어태용 총무(404-547-4754)에게 하면 된다. 조지아해병목사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배창섭(31기), 홍문공(116기), 유지화(144기), 류영호(166기), 김종권(199기), 김종태(205기), 박관영(277기), 어태용(311기), 김민수(362기), 조광연(하135기), 고영민(7627기)(이상 목사).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APS 감사의 날 "지역사회 섬김 확대할 터" 추수감사절 주간 맞아 OC지역 원로목회자들 초청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국어 석사과정 프로그램(APS, 디렉터 변명혜 박사) 학생들이 마련한 아주사 감사의 날 행사가 20일 오전 8시 부에나락에 위치한 Ralph B. Clark Regional Park과 Arby's에서 열렸다. APS 학생들이 지난 2012년부터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실시해온 본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해왔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오렌지카운티 지역 원로목회자들

을 위한 섬김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행사는 팔포 파크에서 재학생들과 원로목회자들이 체조와 산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장소로 Arby's로 옮겨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참석한 모든 원로목회자들에게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다. APS 교수 김석웅 목사는 "저희 APS학생들이 하나님 은혜가운데

어르신들 대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APS 디렉터 변명혜 교수는 "아주사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식사지만 어르신들께 제공한 자리에 함께해서 매우 흐뭇하다. 아주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돼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교 재학생 김재호 전도사는 "오늘 OC지역 은퇴 목회자 모시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신학생 시절부터 실천해나가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 강사 구자혁 교수, 세금혜택, 세금보고 등 안내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가 주최한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가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구자혁 교수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열렸다. 이날 구자혁 교수는 교회와 선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세금혜택을 받기위한 과정, 그리고 세금보고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세금면제(Tax Exempt) 제도는 IRS 코드섹션 501(c)(3)에 의해서 미 연방세금보고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는 지위"라며 "비영리단체 등록 시 은행 구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정관, 법인정보현황, EIN number, 그리고 최초 의사회 회의

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Tax Exempt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규약, 주(State) 등록증명, 정관, 법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영문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Tax Exempt기관의 의무는 레코드 보관, 연간 정보보고(Form 990), 연간전 자기고, 비리관수입세금이며 Form 990의 경우 3년 동안 보고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APS 학생들이 마련한 추수감사절 주간 맞아 OC지역 원로목회자들 섬김의 시간에서 APS 관계자가 한 원로목회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5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하는 '2015 후원자의 밤'이 11월 29일(주) 저녁 6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동 기구의 사역인 아동결연 후원자들과 아동결연에 관심 있는 자들을 초청, 2015년 사역보고 및 후원아동들에 대한 보고를 갖는 시간을 마련한다.

▲문의: (646)270-9771

한인동산교회 설립40주년 감사음악회

한인동산교회(담임 이풍삼 목사)가 설립40주년을 맞아 감사 음악회를 갖는다. 일시는 12월 13일(주) 오후 6시 루즈벨트 고등학교 오디토리엄(631 Tuckahoe RD Yonkers). 이상조 집사 지휘로 본 교회 연합찬양대(58명)와 베델챔버오케스트라(22명)가 메시아 전곡을 공연한다. 솔리스트는 소프라노 반나영, 옐토 김효나, 테너 이성은, 바리톤 이요한 등이 출연한다.

▲문의: (914)961-9250, 0540

후러시제일교회 새 담임 김정호 목사 취임예배

지난 6월 부임한 후러시제일교회 새 담임 김정호 목사 취임예배가 12월 6일(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939-8599

세계한인여성 사명자 집회

세계한인여성 사명자 집회가 12월 1일(화) 오후 1시부터 3일(목) 오후 3시까지 뉴저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열린다. 회비는 일인당 150달러. 강사는 심상대 목사(토론토 부활의교회 원로).

▲문의: (443)306-3876(최현립 목사), (914)260-0071(전인숙 목사)

사랑나눔 콘서트

세계 선교사 후원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가 뉴욕 블리스 색소폰 앙상블(지휘 이대은) 제 5회 정기연주회로 열린다. 일시는 12월 10일(목) 오후 7시30분 플러스 타운홀. 소프라노 국영순 씨가 특별 출연한다.

▲티켓문의: (718)578-9068, 640-8995

프로젝트 매니저 구함

가정사역 단체 패밀리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풀타임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찾고 있다. 하는 일은 Grant project management, community outreach, counseling 등이며 MSW 혹은 카운슬링으로 정규학교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이중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이력서는 이메일(Familytouchusa@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242-4422

스마트폰 강좌 초, 중급반 개강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47기)과 중급반(48기)이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 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초급반 강의는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90분간 하며 강의 내용은 전화, 메시지, 일정, 알람, 타이머, 사진, 영상, 카톡의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 △중급반은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 90분이며 앱 다운로드받기, 성경보기, 신문/TV/유튜브 보기, 기독교방송 듣기, 인터넷하기, 이메일활용법, 주소로 지도찾기, 와이파이 연결법, 카톡 친구 찾기, 단체방 만들기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안드로이드 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초, 중급반 모두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문의: (347)538-1587

뉴욕나눔의집 쉼터 기금모금 디너콘서트

12월 15일(화) 저녁 7시 대동연회장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가 주최하고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이 주관하는 '한인노숙인 쉼터, 나눔의 집 쉼터 기금모금'을 위한 디너콘서트'가 12월 15일(화)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박성원 목사(뉴욕공성교회 담임)는 나눔의집 노숙인 사역을 설명하면서 "2008년 시작된 한인 노숙인 재활시설인 나눔의집이 3년 반 전부터 임시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기 노숙인의 경우는 주로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과 질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 노숙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원 목사는 "뉴욕의 한인교회는 쉼터를 세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눔의집은 연말에 한 번씩 디너콘서트를 통해 1년 유지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현재 2동에 남, 녀 노숙인이 따로 숙식하고 있으며 1.5세도 있다. 연령은 20대에 이 80대까지 다양하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사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담임)는 "나눔의집은 지나가다 만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처마나, 눈 속 밤길에 작은 불빛 비추는 농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이제 한인사회에도 도움 받을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는 콘서트보다는 디너에 초점을 맞춰 식사비(100달러)를 내고 식사를 하고 남은 돈은 후원금으로 적립된다는 의도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이사로 활동 중인 최재복 장로는 3년여 전 지하 방에 샤워시설을 만들어준 장본인으로 "뉴욕에 400여 한인교회와 3, 40개 단체가 있지만 노숙자 문제엔 관심이 없다. 이들은 가정이 없고 병들면 갈 곳이 없다. 누구든지 갑자기 집(아파트)에서 쫓겨났을 경우 당장 잘 곳을 제공할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계훈 장로는 이날 콘서트에는 슈퍼스타K3 크리스티나 리(이영주), 뮤지컬 '히즈라이프' 예술역 Randy Brooks, 김창숙 명창, 뉴욕기독교방송(CBSN)합창단,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과 뉴욕클래시컬시모니 오케스트라앙상블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있다고 설명하고 만찬 후 콘서트와 경품행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욕나눔의집은 이번 행사를 통해 2만 달러 정도의 후원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347)538-1587로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새 회장에 김영환 목사

제44회 정기총회, 부회장 김상태 목사, 감사3명 선출

뉴욕목사회 제 44회기 임원선거에서 회장에 김영환 목사, 부회장에 김상태 목사가 선출됐다. 감사 3인은 임재홍 목사, 우병만 목사, 박태규 목사가 선임됐다.

신임회장 김영환 목사(뉴욕효성침례교회 담임)는 "총무와 서기 임신행위원을 역임하고 부회장 후보로 3회 낙선하고 5년 만에 회장이 됐다"며 "뉴욕목사회를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첫째, 기도하는 목사회로 둘째,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목사회 셋째, 화합과 사랑이 있는 목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지난 23일 뉴욕목양장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린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제 44회기 정기총회는 회장 이만호 목사의 사회로 개회기도 황동익 목사,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 전회의록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이만호 목사는 "행복한 한해였다"며 "지난 1년간 동역해주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뉴욕교협 부회장에 출마에도 후원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사업보고, 행정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선관위보고가



뉴욕목사회 44회기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어졌다.

43회기는 산상기도회 2회, 성탄 축하예배, 목회자가족 불림대회, 미동부 5개주 연합체육대회 뉴욕목회자 성경세미나 2회, 장학금수여식,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 가을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치렀다.

회계보고는 총수입 145,938,78달러, 총지출 146,821,21달러, 총잔액 5,318,54달러였다.

선거는 조병광 목사의 기도 후 단독출마한 회장후보 부회장 김영환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 선거는 동일교단(PCA)인 두 후보, 기호1번 오택환 목사(뉴욕은총장로

교회 담임)와 기호2번 김상태 목사(뉴욕주님의교회 담임)를 놓고 투표한 결과 총 115명의 투표권자 중 59표를 얻은 김상태 목사가 과반수를 1표 넘겨 당선됐다. 오택환 목사는



뉴욕교협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신년예배, 할렐루야대회, 청소년센터...

뉴욕교협 효율적 발전 갱신 위한 대토론회

뉴욕교협이 42회기 출범에 즈음하여 교협의 효율적인 발전 갱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교협회장은 임기가 1년이므로 잘못된 점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번 42회기에는 이런 약순환을 없애고 거듭난 교협이 되기 위해 5가지 사업(본지 1560호 10면 참조)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증경회장(은퇴) 중심이었던 특별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등 효율적인 교협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토론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총무 박진하 목사 사회로 부회장 김홍석 목사의 기도 후,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박진하 목사가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서기 단준희 목사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패널은 증경회장 최창섭 목사, 여성목회자협의회장 장경혜 목사, 전 교협총무 유상열 목사 등 3명이며 이사장 이상호 집사는 불참했다. 박진하 목사는 "40여년 교협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한 전통과 이 시대의 사업들을 점검시키고, 세대 간의 정책을 조율해보고 변질된 문 제점을 바로잡아 더 발전된 교협, 칭찬받는 교협이 되도록 변화의 물꼬를 트는 42회기가 되기 위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협의 존재목적과 실질적 목표-회칙에 의하면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가 목적인데 모든 것이 선교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선교는 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기관으로 사역적 측면(전도, 이단대처 등)과 대사회적 측면(한인회, 사회적 이슈 등)이 있다. 이사회는 후원이사회로 예산 통과 권한은 문제가 있다. ▲신년감사예배의 궁극적 목적-비싼 회비, 경품 등은 부담. 기도회로 바뀌 교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추구한다. 식사는 뷔페식으로.

▲할렐루야복음화대회-대회의 목적과 장소, 감사 선정 등이 문제다. 이 시대에 맞는 대회로 처음 할렐루야대회는 전도대회였다. 다만 족 대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감사에게 일꾼도 안주고 일꾼도 안 받는 회기도 있었다. 감사에게 꼭 돈을 받지 않아도 회원교회들의 후원으로 할 수 있다.

▲선거방식의 효율적 제도-사전 등록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편신도는 교회소속증명서 제출. 공천위원회, 후보가 밥을 사면 후보 탈락시키는 세칙 마련. 돈을 요구하면 고발하는 제도 마련.

▲차세대와의 유대관계 대안 및 청소년센터 문제-청소년할렐루야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년대회와 같은 시기에 하도록 한다. EM이 교협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외에 임원활동비에 대해서, '총무 서기가 무보수로 활동할 수 없다'(장경혜 목사)는 패널리스트의 말에 '월급으로 지급되는 보수와 활동비는 구분해야 한다'(유상열 목사)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종명 회장은 "임원, 실행위는 봉사직"이라며, 자신이 서기, 총무로 일했을 당시 일꾼도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현 총무, 서기에게도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추가 발언에서 이광도 장로는 이 사회의 힘든 입장을 설명했으며, 주효식 목사는 "목사로서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제도나 사역도 필요하지만 먼저 상식과 양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협의 교협의 발전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결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실행위에 오늘 토론내용을 정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토론회는 신현택 목사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 위한 찬양축제를 마치고 교수,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 찬양하는 사역자...

동부개혁장신 제29회 장학기금 위한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제29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가 18일 오후 8시 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이규본 목사(학감), 기도 김희태 학우(목회학석사과정), 성경봉독 이숙규 학우(목회학석사과정),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 말씀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시145: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학생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신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있지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달라지기도 한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된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의 시작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또 다른 방편이 된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낫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찬양의 순서는 독창 소철화 교수, 합창 신학교합창단, 간증 전 행복 학우, 독창 이재환 학우, 인사 이규본 목사, 헌금 및 찬송, 봉헌기도 허윤준 목사(동문회장), 합창 신학교합창단, 축도 강기봉 목사(학생처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신학교로 1987년 설립돼 2015년 총4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동부개혁장신은 매년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주미전교회(담임 이규본 목사)에서 열렸으며, 12월 2일(수) 오후 8시에는 필라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열린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쉼터 기금모금 디너콘서트 홍보 차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뉴욕기독교방송 장영춘 이사, 이계훈 장로, 박성원 목사, 임병남 목사, 최재복 장로, 문석진 목사.

(4면에서 계속)

미국에 이민 와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옷을 찾아가던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옷 한 벌을 안들려주었다고 따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공손하게 그럴 리가 없다고 설명했고 그는 아니라고 하며 동네사람들에게 세탁소에서 맡은 옷을 안들려주었다고 나쁘게 말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세탁소에 와서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힘

들게 하던 그 손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말렸다고 생각한 옷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세탁소 주인을 욕하고 다닌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니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그의 손을 잡은 집사님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세탁소에 올 때마다 성경을 보거나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우리들이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훗날 천국에 들어갈 때 큰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앞사간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면 그가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아마 오늘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구를 여행할 동안 예수님을 믿으므로 천국여권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간직하세요! 그리고 구원해주신 은혜에 고마워하며 착하게 살아 하 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성결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회장선출 무산...초유 사태 발생

남가주교협 제46회 정기총회, 수석부회장 김재울 목사만 인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가 개최한 제46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중앙루터교회(담임 흥영환 목사)에서 열린 총회는 시작부터 지난회기 회의록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엄격하게 진행됐다. 특히 차기회장후보로 나

왔던 강신권 목사에 대한 회장후보 취소소장에 대해 회원들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결국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된 김재울 목사에 대한 인준이 통과된 상태에서 정회됐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회의에서 강 목사에 대한 소명발언권 여부로 대립각을 이뤘으며,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소명의 시간은 주어져

지 못했다. 그리고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 목사에 대한 공천위원들의 회장후보 검증절차에 의해 회장후보로 공천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회의석상에서는 7인으로 구성된 회장후보 인선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회장후보인선위원회는 회장과 증경회장단으로 구성된 인선위원회와 회장에게 7인의 인선위원을 지명해 인선작업에 들어가는 의견이 나왔으며, 회장이 인선위원 7

인을 지명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7인의 인선위원으로는 증경회장단이 지명했으며 증경회장단 회장 최학량 목사는 현 회장 유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혁 회장의 회장유임 고사로 인해 회장선출에 대해 다시 논의가 되었으며, 강신권 목사를 재추천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결국 총회는 최혁 회장 인사체제로 하되 추후 임시총회를 열고 새 회장단을 선출하며 새 회장은 현재 정관에 명시된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인준을 받는(정관 14조 4항) 조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부회장 중에서 회장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협 총회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가운데 폐회되었다. 사진은 총회부서기 백중은 목사가 수석부회장 강신권 목사가 회장공천에서 탈락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자선냄비 타종식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 참석자들. 이날 설교는 한기형목사

소외된 이들 위한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자선냄비 12월 24일까지 모금활동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타종식이 19일 11시30분 구세군나성교회(이주철 사관)에서 남가주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타종식에 앞서 김영균 정교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재울 목사(나성동교회) 기도, 한기형 목사(나성동교회) 설교, 축사 김현명 영사(대우 류상민 부영사), 제임스안 한인회장(대우 이인복 부회장) 축도 이운영 목사로 진행됐다.

한기형 목사는 "주께 하듯 하라"(골3:23)의 제목으로 "사랑의 나눔 운동은 거둬 감조해야 한다.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회생하는 사랑으로 봉사할 때 신앙이 생활로 실천되는 것이 나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종식을 통해 지난해 사업

보고와 한남제인, 김스전기, 갤러리아마켓에 감사패를 증정한 후 이주철 사관이 타종식을 선언하고 성금 기금의 시간을 가졌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12월 24일까지 성금모금을 진행하게 되며 예년과 같이 LA지역 각 마켓을 중심으로 펼칠 예정이다

자선냄비는 1891년 12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한척이 난파돼 생긴 난민을 돕기 위해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 정위가 주방에서 쓰던 큰 쇠솥을 꺼내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시작돼 지금의 자선냄비로 이어졌다. 남가주구세군 자선냄비에서 모금된 기금은 무숙자, 저소득층 가정, 미혼모, 장애인, 마약, 술 중독자들의 재활 등을 위해 쓰여진다. (이성자 기자)



목사부부장으로찬양단 스태프들

제8회 목사장으로 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11월 29일(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제8회 목사장으로 부부찬양단(단장 정윤우 목사·지휘 전중재 교수) 정기연주회가 오는 29일(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교회의 리더로서 이민목회 현장에서 영혼들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은 이번 연주회에서 세 차례의 스테이지를 통해 절제와 인고의 세월로 빚어낸 숙성된 음악을 선사하게 된다.

단장 정윤우 목사는 "지난 1년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단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연습했다"며, 이번 무료 음악회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총무 강평근 목사는 "이민한인교계가 분열의 모습에 놓일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매주 모여 찬양연습을 할 때, 그리고 정기연주회나 초청을 받아 무대에 설 때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화음을 내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마치 갈등 속에 놓인 영적 리더들이 하나로 화합되는 모습이 연상돼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단장 전선숙 목사는 "매주 모여 찬양을 할 때면 찬양을 통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감성선안 수술도 하는 등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장으로 부부찬양단에서 부르는 찬양이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만들었다"며 찬양단 활동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눴다.

2006년 창단된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그동안 목회자 위로의 밤, 이민문학 심포지엄, 광복절 찬양제 등에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모금 연주회 등의 육적인 활동을 펼쳤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나성영락교회 소망관에서 연습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신실한 이들의 가임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총무 강평근 목사(818-468-8672)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1회 사우스베이 이스라엘 선교찬양제

빛과소금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선교부가 주최하고 엠마오선교회가 후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제 1회 사우스베이 이스라엘 선교찬양제가 '왕이 오신다. The King Comes'라는 주제로 12월 5일(토) 오후 7시 Mission Ebenezer Family Church(415 W. Torrance Bl, Carson)에서 열린다. ▲문의: (310)749-4756

2015 아주사 송년의 밤

아주사파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대표 최장식 목사)는 2015 아주사 송년의 밤을 12월 7일(월) 오후 5시30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교는 이원우 교수(미시건 칼빈대학교)가 맡는다. ▲문의: (818)331-5478, (310)988-0099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11월 29일(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800 W. Katella Ave)에서 열린다.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615-9191

목회자/선교사자녀 장학후원 음악회 개최

디에클레시아은혜의강교회, 12월12일 세계야가페션교회에서

남가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PK)와 선교사 자녀(MK)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2월 12일(토) 세계야가페션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리는 소프라노 김희경과 함께하는 장학후원 음악회. 아가서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장학후원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희경이 무대에 올라 따스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게 된다.



디에클레시아은혜의강교회 주회 P.K & M.K 장학후원 음악회 무대에 서게 되는 소프라노 김희경

소프라노 김희경은 고신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졸업하고 울산시립합창단원을 역임했다. 도미 후 월 드미션 대학교에서 음악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2007년 NATS(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Singing)가 주최한 'Gwen Roberts Young Artist Auditions'에서 영예의 1등을, 또 콩쿨 1위 입상자를 위해 수여된 'Gwen Roberts Young Artist Auditions' 주최 제1회 소프라노 김희경 독창회를 바이올리나대학교에서 가져 미 주류 음악교수들과 미 주한인들의 극찬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 코랄레움 선교합창단(지휘 이경원, 반주 김주영)과 달리다 굼 바디워십팀이 장학후원음악회



이음카페에서 열린 새생명비전교회 어쿠스틱 워십 나이트에서 찬양사역자 구현화 사모가 찬양하고 있다

를 위해 찬조 출연한다. 장학후원 음악회를 준비 중인 이상훈 목사(디에클레시아은혜의강교회 담임)는 "P.K와 M.K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저희교회에서 나아가는 세대간 연합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라 말하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히 목사와 선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데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의 입장료는 20달러이며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저세한 문의는 이상훈 목사(310-803-6858)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213)559-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성(말-금): 오전 5:30 찬양예배: 오후 7:30 EM: 대명: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un.org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EM): 오후 11:30 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 |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찬양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 9:20 주일학교: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c.org |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특: 김경,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드림교회 담임목사: 정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 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대명)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찬양부1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jca.org Tel: (213)381-2202 /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1:00(찬양)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일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오전 5:30(대명)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2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 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
|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4부예배: 오후 2:00(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은혜성경기도회: 오전 24(화-토)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영양예배: 오후 7:2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EM예배: 오후 12:00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C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iunimchurch.com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 |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화요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org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토렌스오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찬양)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목회자 자율성 보장·미 남침례교단 지원

제3회 사산현대목회포럼, 침례교 100만성도 약진

현대목회연구소(소장 최동규 서울신대 교수)는 17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 우석기념관에서 '제3회 사산현대목회포럼'을 열고 교회개혁 사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2000년대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의 교회개혁 현황을 중심으로 다뤘다.

정기목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예장통합의 상황을 전했다. 예장통합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교회 수 1만, 교인 수 400만을 목표로 '만사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힘입어 전반기엔 공격적인 교회개혁이 이뤄졌지만 후반기엔 양분다 짝을 강조해 교회개혁이 감소세를 보였다.

정 교수는 "적극적인 교회개혁을

위해선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회개혁 전문시스템'을 교단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면서 "신학교 교수들이 조언을 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근재 주안대학원대 교수는 기침의 교회개혁 상황을 설명했다. 기침은 20년 전만 해도 군소교단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올해 기준 3000여 교회, 100만 성도로 부흥했다. 유 교수는 "기침의 부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인 남침례교단의 지원을 받은 데다 개교회주의라는 침례교의 특성상 목회자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침례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총회, 지방회, 교회, 신학교가 힘을 합쳐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식 서울신대 박사는 기성의 교회개혁 현황을 소개했다. 기성은 교단 설립 100주년(2007년)을 앞두고 2003년부터 3000교회 80만 성도를 목표로 '교회개혁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60여개 교회가 개척됐지만 2008년 이후에는 교회개혁이 크게 줄었다.

김 박사는 "교회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회개혁을 위한 전문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신대원에 교회개혁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교회개혁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에게도 특별강좌 형식으로 개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성의 새로운 개혁운동인 분립개혁을 대안으로 연구하고 현재 1년에 1박2일에 불과한 교회개혁자를 위한 '계속 교육'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세대에 기도의 불 붙여라”

예장합동 ‘3355 학교기도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전국기독교학생연례회(SCE)는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3355 학교기도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3355 학교기도운동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찾아 이를 기도로 실천하는 운동이다.

SCE는 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본부에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355 학교기도운동의 의미와 비전을 소개했다.

"다음세대의 가슴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라"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총회 김민교 학생지도부장과 김창수 총무, 김상훈 총신대신대원 원장, 김인환(대신대) 김재연(칼빈대) 총장이 참석해 캠퍼스 기도운동의 필요성과 협력방안에 대

해 논의했다.

사회를 맡은 노재경 총회 교육진흥원장은 "식여가는 영성을 회복시키는 기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3355 학교기도운동'의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3355"는 3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 '나, 우리, 우리 학교'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 가정, 교회, 민족, 세계'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운 말 쓰기, 정직하기, 예의 지키기, 청소하기, 순결 지키기'를 경건생활 덕목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김재연 총장은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책임 있는 대안 제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신학, 교육, 가르침도 중요하지

만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도 "기도 없이는 시대와 사람을 깨울 수 없다"며 "기도운동을 통해 변화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김인환 총장은 "학교기도운동이 하나의 슬로건에 그쳐선 안 된다"며 "생활밀착형으로 진행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SCE가 내년 3월부터 캠퍼스 별로 본격적인 학교기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다. 김창수 총무는 "이번 기도운동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로부터 시작돼 교회와 가정, 사회를 살리는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총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교 부장은 "총회학생지도부와 전국SCE가 협력해 내년 1월 개최되는 SCE 겨울수련회에서 학교기도운동에 동참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SCE가 내년 3월부터 캠퍼스 별로 본격적인 학교기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다. 김창수 총무는 "이번 기도운동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로부터 시작돼 교회와 가정, 사회를 살리는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총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교 부장은 "총회학생지도부와 전국SCE가 협력해 내년 1월 개최되는 SCE 겨울수련회에서 학교기도운동에 동참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SCE가 내년 3월부터 캠퍼스 별로 본격적인 학교기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다. 김창수 총무는 "이번 기도운동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로부터 시작돼 교회와 가정, 사회를 살리는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총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교 부장은 "총회학생지도부와 전국SCE가 협력해 내년 1월 개최되는 SCE 겨울수련회에서 학교기도운동에 동참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성과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루터회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시작으로 루터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서적들을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고 지인우(1924-2013) 목사의 '마르틴 루터' '루터의 종교개혁' 개정판을 각각 출간하며 미국 신학자 카터 린드버그의 저작 '마르틴 루터'도 선보인다. 루터회 관계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루터 관련 서적을 발굴하는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16세기 초반의 상황을 전하면서 루터의 신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됐는지 소개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석좌교수인 저자는 현존하는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이다.

1985년 출간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2001년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출간됐다. 루터회는 "개정판에는 새롭게 축적된 루터 관련 연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의 'PD수첩' 등 시사교발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했던 점, 이 단체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했던 점에 비춰볼 때 강씨 등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도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탈퇴한 여신도의 집에 들어가 폭행·감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구MBC는 이 같은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뉴스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다더라 신도들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거나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차기 대표회장에 조일래 목사

단독 입후보...“교회 이미지 향상에 노력”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차기 대표회장 후보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조일래(68)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다.

조 목사는 다음달 11일 한교연 총회 때 과반을 득표하면 대표회장에 당선된다. 그동안 한교연은 관례적으로 단독후보일 때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해왔다.

조 목사는 "부족한 사람인데 한

교연 대표회장 단독 후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섬기며 소통하겠다"면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이슬람 대처, 종교편향, 목회자 남세 문제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교연 사업을 이어받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침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감사해야”

교회갱신협의회 ‘교회갱신과 목회 윤리 세미나’

지난달 22일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목회자 상해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목사'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어에 '목사 칼부림' '목사 흉기' '금천구 교회 칼부림'이 줄지어 나온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지난 20일 서울 서교동 서현교회(김경원 목사)에서 '교회갱신과 목회 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예장합동 출신인 만큼 현실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교갱협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끔찍한 사건 이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목회 윤리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성격장애 이해와 치유'를 주제로 강의를 이관직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자랑·교만하지 않음" 등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특성들을 하나씩 짚어 가며 목회자의 인격이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풀어냈다. 그는 "칼부림 사건의 당사자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면서 "목회자들은 힘들수록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로 인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치명적 죄악"이라며 "동기 목회자가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목회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 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서 선교비 모금, 1년 만에 36억 성과

‘원바다’, 크라우드 펀딩 형식 도입 선교사 1천명 후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교비를 모금하는 '미션 펀드'가 개설 1년여 만에 36억여원을 모금했다. 현재 미션 펀드를 통해 후원받고 있는 선교사는 1000명, 후원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세계 각국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선교단체 '원바다'(회장 최부수)는 18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모금 또는 후원할 수 있는 플랫폼인 미션 펀드를 지난해 9월 개설한 이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션 펀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방식으로 미션 펀드 홈페이지(missionfund.org)를 통해 운영된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교사와 후원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선교 사역을 소개한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방문자가 선교사들 중

에 특정인을 선택해 후원을 약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정기후원 또는 계좌이체 정기후원도 가능하다.

최부수 회장은 "선교사들이 후원자 발굴과 관리에 신경 쓰기보다 현지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펀드를 개발했다"며 "선교사들은 안정적 후원자들을 확보함으로써 무엇보다 장기적인 선교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선교사들은 후원자 발굴과 관리를 위해 한 해에도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원바다는 새로운 후원자 발굴을 위해 원바다 회원과 각 선교사의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 후원을 독려한다. 후원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후원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지정된 선교사에게 송금한다. 매달 300만원 이상 후원받는 선교사도 있다. 후원자 1인당 후원액은 5000원이나 1만원이 가장 많다.

성경 1억6천만부 240개 언어로 해외 보급

대한성서공회 창립120주년...학술 심포지엄전시회 등 풍성

한글 성서 번역은 중국 만주에서 시작됐다. 중국 선교를 위해 1872년 만주를 찾은 스코틀랜드연합장로회 소속 존 로스 선교사는 1874년 중국 우장의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한국인들을 처음 만난다. 2년 뒤인 1876년 다시 고려문을 방문해 이용찬에게 한국어를 배워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인들과 함께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번역했고 1882년 3월 드디어 최초의 한글 단편 성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완성했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3000부 발행했지만 서북 방언으로 돼 있어 읽기가 어려웠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성서를 쉽게 번역해 널리 보급한 것이 대한성서공회였다. 1895년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로 시작한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과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해 성경을 번역했다. 1900년 신약, 1911년 성경전서를 출간했고 1938년과 61년, 98년 세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의 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출간했다.

이정의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길 정동제일교회(송기성 목사)에서 열린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에서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 보급해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기도 및 재정으로 후원해 준 한국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총독부의 압력으로 문을 닫는 아픔도 겪었지만 광복 후 재건에 성공했다. 1979년에는 자립을 이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1억6000만부의 성서를 해외에 보급했고, 해마다 240여개의 언어로 약 700만부의 성서를 제작해 120여 국가에 보내고 있다.

이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기념예배에서 손인옥(덕수교회 원로목사) 부이사장은 "아름답다. 복음 반포 120년"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손 부이사장은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소송대원 부정적 뉴스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기독교 '싱크탱크' 개념인 가정 한국사회발전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와 사회 언론을 향해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정책과 자료를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부산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 서울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총회 선교사무원위원장, 교역자공제회 이사장, 세계성결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목회자들은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교단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다면적인성검사(MMPI)와 로사 검사를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오늘날 교단정치의 핵심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권력투쟁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장로교회사에서 보수진영의 교단분열은 모두 내부 교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다"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밀실에서 협의하듯 교단정치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갈등조정으로서의 교회정치 회복' '교회정치 사안들의 공개화' '투명한 재정구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탁월한 영성과 인품을 지닌 지도자들이 교단의 중심부에서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원바다 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액 후원은 5년 이상 지속된다"며 "선교 사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5000원, 1만원 등 소액후원이 더 낫다"고 말했다.

원바다는 미션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수전도단(YWAM), 성경번역선교회(GBT), 이랜드 아시아인 미션,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흙(HOPE) 선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OMS 등과 협약을 맺었다.

원바다는 최근 업그레이드된 미션 펀드 2.0 버전을 출시했다. 새 버전에선 긴급 구호, 교회 건축 등의 프로젝트를 후원자 주도로 진행할 수 있다. 후원 목표치와 현재 후원액을 그래프로 쉽게 비교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성경 소책자 '바이블 타임'을 통해 성경 읽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션 펀드를 원바다의 핵심 사역으로 정해 국내외 선교사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20년 동안 이 기쁜 소식을 국내외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예배에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일레인 던컨 총무, 탄자니아성서공회 므쿱가 므팅켈레 총무, 일본성서공회 마코토 와타베 총무 등 세계 각국의 성서공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창립 12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열렸다. 박동현 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개역 성경의 재발견'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개역성격은 한국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서학의 발전으로 성경 원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만큼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성득 미국 UCLA 교수는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해방 이후의 대한성서공회 역사를 정리했다. 그는 정태웅 총무 등 4명의 총무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공회의 '재건' '자립' '성장' '세계화'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는 '통일'과 '다음세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2만명 중국선교사 파송(1)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제 1회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가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다. 약 1,000명이 참석했는데 대다수는 이 선교대회의 주체가 된 68개 중국 가정교회에서 보낸 교회 지도자와 교인이었다. 상해의 한 가정교회에서 108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도 노력하였다. 필자는 중국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느낀 바를 글로 표현하기 원한다.

I. 선교대회의 배경

1. 선교중국2030은 2011년 10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제3로잔대회가 열렸을 때 4,000명이 참석했다. 중국가정교회 지도자 230명이 참석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반대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2014년 6월 서울의 장신대 캠퍼스에서 동북아시아로잔위원회 주최로 아시아 교회지도자 선교대회(Asian Leadership

(Robert Morrison-1807년)와 China Inland Mission의 창설자(Hudson Taylor-1865년)를 비롯하여 수많은 서양선교사들의 사역의 사진과 설명서가 쓰여 있는 병풍이 진열되어 있어서 중국선교의 역사를 한 번에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병풍 재료는 대만의 "우주관 선교단체"에서 제공하였다.

5. 선교중국2030의 중요관심은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이었다.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밖에 안되는 작은 한국교회에서 26,000명이 넘는 한국선교사를 170개 국가에 파송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하여 필자에게 "한국교회 선교운동역사"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이다. 필자는 강의에서 두개의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였다. 첫째는 1000만 교인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26,677명(2014년)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한국교회

복음화운동을 강조하였고 둘째 날 저녁은 중국교회 선교사들의 간증이 있었다.

1. 외국인 강사들의 메시지

외국인 강사는 다섯 명이었는데 그중의 세 명은 한국인이었다. 선교대회 첫날 저녁 강의는 남미 브라질에서 자라난 Luis Bush 박사(Transform World 총재)였다.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대사명인 선교를 성경적으로 강조하며 세계복음화운동에 중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면하였다.

한국에서 초청된 세 명 중 한 명인 필자(노봉린 박사)는 "한국교회 선교운동역사"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중국교회가 약 1,000만의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작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에 대한 선교 역사적 배경을 알기 원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선교사로 1970년 싱가포르에 파송 받았을 때는 한국선교사의 수는 단지 약15명밖에 안되었다. 1979년에

9월 홍콩서 열린 선교중국2030에 68개 가정교회서 1천명 참석

한국교회 8배 중국교회는 2030년까지 '20만명 선교사 파송' 강조

Conference)가 열렸는데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약 200명의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때 선교중국 선교대회를 개최하기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결과로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2. 선교중국2030은 중국의 68개 가정교회가 주관하는 모임이 되었지만 그중에 복경, 상해, 윈주에서 사역하는 6-7명의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 선교대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중국정부의 보안 문제로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은 약한다.

3. 선교중국2030은 중국가정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었으므로 중국정부의 보안문제도 연결이 되어 모든 프로그램은 철저한 감시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선교대회 책자에도 중요 강사들의 사진과 경력에 대해 간단히 적혀 있지만 강연 내용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각 참석자는 이름과 사진이 있는 명찰을 목에 걸어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중국의 68개 가정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도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4. 선교대회장소는 홍콩 북쪽에 있는 YMCA 빌리지 캠퍼스에서 열렸는데 넓은 벽에는 250개가 넘는 중국선교에 관한 그림 병풍이 걸려 있었다. 영국의 초대선교사



93명, 1989년에 1,178명으로 한국 선교사의 수는 많지 않았다.

필자는 OMF 선교사로 싱가포르(1970-74)와 대만(1975-89)에서 사역한 후 한국에 돌아와 아세아연합신학교(1990-97)와 핏볼트리니티신학교(1997-2000)에서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한국선교사의 급속도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도 1990년대부터 이뤄지게 되었다. 하나님에 한국교회 성장과 한국경제 성장을 같이 이루게 하면서 한국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1956년도의 연간 소득(GNP)이 단지 67달러 밖에 안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1991년 GNP가 6,757달러였고 2014년에 일인당 소득이 24,000달러로 올랐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북한의 2014년의 소득은 1,800달러 밖에 안되어 남한과의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의 8배가 되는 중국교회에서 2030년까지 20,000명보다 200,000명의 중국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에 중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교회 성장 폭발은 중국기독교인의 영적폭발과 급속도의 양적성장 때문이며 앞으로 중국선교의 비전까지 중국교회에 가하면 세계복음화운동에 앞장을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II. 선교대회 프로그램

3박4일의 선교대회는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오전에는 중요 특강이 두개가 있었고 오후에는 49개의 선교 워크숍이 각 분야별로 마련되었다. 저녁에는 간증시간으로, 첫날 저녁은 중국내의 미전도 중추



우크라이나

오랫사 수요 여리고 기도회를 돌아보며...

어제 수요예배에 마리아 전도사님이 아시아41:10으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보는 말씀인데, 전도사님의 설교는 저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사진은 교회 건물 재판으로 시작한 만 8년 동안 해오는 수요여리고기도회 모습입니다. 참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짐과 같이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리고기도회 방법은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밖에 나와서 3가지 기도제목으로 교회 주위를 3 바퀴 돌면서 기도합니다. 대체로 첫째 바퀴는 성도님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둘째

님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놀랍도록 신실하게 새 건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건물 전면 보수 공사

이제 내년 부활절에는 건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여리고기도회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이전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여리고기도회에 참석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예배당 내부 공사

새 예배당은 오랫동안 시인들이 모두 알게 되는 공개된 독특한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공인 한 결에 숨어서 일하다가, 이제는 오랫동안 시인들이 쳐다보는 광장 앞에서 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할렐루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지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을 기대합니다.



바뀌는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셋째 바퀴는 국가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비슷한 기도제목으로 빠짐없이 400회 남도록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3명이 할 때도 있었고, 이제는 아예처럼 20여 명이 함께 참석하는 편입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모두 응답을 받았음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내년 새 예배당에 입당할 때까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여리고 기도 후 감사기도

이렇게 수요 여리고기도회를 하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교회 건물의 재판으로 여리고 기도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할렐루야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이 연합한 교회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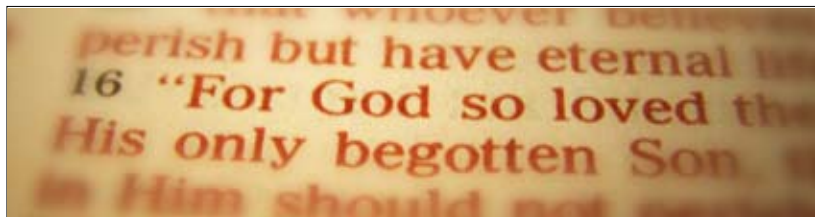
기도제목:

1. 할렐루야교회 성도님들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2. 오데사 시와 오데사 주에 거주하는 모든 고려인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 새 예배당의 부대 법적인 서류를 위해, 1년 전에 신청한 수도가 속히 연결되며, 전기 신청서류가 접수가 되며(턱없이 비싼 수수료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음), 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땅 임대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4. 아버지(폐암)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정한규 선교사
visionukraine@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 | | | | | | |
|--|--|--|--|---|---|--|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1,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35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gtochurch.org |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hdcchurch.org |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
|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 에벤에셀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 에사랴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 킨즈턴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718)886-7835,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 킨즈턴신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
|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22-003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nak@gmail.com |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 | 뱅크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3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 |
|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8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URI-SAOS PAULO-SP-BRASIL |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주기도회: 아침 7:40 수.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복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el: (595)211-574-985 E-mail: hanimkr@hotmail.com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www.hawai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복음서 이야기 - 제 1화 -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교 선교학교수)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불변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치 3D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성경 밖으로 걸어 나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감동을 접할 수 있다.

2015년 성탄절을 앞두고, 독자 여러분들을 기원한 4년부턴 27년 후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인도한다. 본 내용은 신, 구약 성경과 Kenneth Bailey 저,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와 Bill O'Reilly & Martin Dugard 저, Killing Jesus 외 몇몇 문헌들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연재는 6화로 구성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한편의 역사대하 드라마이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이다. 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대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흠모해 마지않는 600년 전의 대예언자, 이사야의 기록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한 바 있었다(미5:2). 이 미가 선지자의 기록을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난 700년 동안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었다. 이렇듯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절절했을 만큼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인들은 길고 긴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그것도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이 출생소식이 일단의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의해 편집증 환자인 유대 왕 헤롯(Herod)에게 전달되었고, 이 위험천만의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은 안절부절 못한 나머지 베들레헴 일원의 2세 이하 남아들을 모조리 집단학살 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마2:16).

이 예순일곱의 헤롯 왕을 제대로 살펴봐야 예수님 탄생 당시의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2천여 년 전, 고대사회에서 67세이면 상당히 고령이라 할 수 있는 이 늙은 유대인 왕은 신장질환과 폐질환, 기생충,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었고, 발가락 통풍이 심해, 왕의 위엄에 어울리는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절름거리며 왕궁을 걷고 있었다. 같은 질문이 아닌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아내와 아들들을 가차 없이 처형한 상황인데, 새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나다니?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상당한 위엄과 권위를 지닌 세 사람의 동방박사(Magi)의 질문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은 현재의



생각해보라. 이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에 대해 광적인 집착을 보인 잔인한 헤롯 왕에게 주어진 선택이 무엇이였겠는가를 말이다. 두 살 이하의 남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 외에는 그가 달리 상황대처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왕명이 떨어지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여러 마을에서는 피바람이 불었고, 남이를 출산한 집집마다 비명과 통곡소리가 넘쳐났다(마2:16-18).

그 당시 헤롯왕은 자신의 친위대를 외국인 용병으로 채웠는데, 주로 바벨로니아, 트리키아, 시리아 출신의 건강한 용병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고 있었다. 저들이 선량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잔인했겠는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이 절대 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잔

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은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섞여 왈칵 떨어질 시끄러운 시장과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지나 성전으로 향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이지 않을 수 있었다(이 두 번째 성전 방문에서 아기 예수는 지고지순한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품에서 메시아로서의 재확인 받는다/눅 2:25-38).

이 숨 막히는 위기감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빠져나오지 못할 뻔 했다. 그것도 그날 밤 요셉이 무서운 악몽을 꾸지 않았다면 말이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잔인한 헤롯의 유아살해, 집단학살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마2:13).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간발의 차이로 베들레헴을 빠져나온 후였다. 한 밤중에 급하게 짐을 챙겨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잔인한 헤롯의 유아살해, 집단학살에서 벗어나게....

'죄인들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실제 역사적 드라마의 일부....

사실 그는 유대인 왕이긴 했지만, 혈통으로는 아랍인으로 아버지는 이두메(에돔) 지역의 부족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페트라(지금의 요르단) 출신의 아랍여자였다. 그의 부인은 열 명이었고, 성격이 불같은 아내 미리암이 모반을 꾸몄다고 해서 잔인하게 왕후를 처형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두 아들(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로스)도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1년 후 셋째 아들도 자신의 손으로 죽인 비정한 아버지였다.

이런 그에게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가진 세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들이닥쳐 느닷없는 질문을 던진다. "새 왕이 될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얼마나 청천벽력

이란을 출발해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무법천지의 파르티아 사막을 지나 자그마치 1600킬로미터의 엄청난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고, 저들의 신분은 동방에서 저명한 천문학자, 종교연구가, 철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부유한 지도층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들이 입고 있는 의상의 호화로움은 유대인 왕족의 그것과는 전혀 비할 바가 못되었고, 저들이 새 왕이 될 아기를 위해 준비해 온 선물을 보고 헤롯왕은 저들의 말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저들은 새벽마다 유난히 빛나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 이 먼 곳까지 왔다고 했다(마2:2).

인한 집단 유아살해의 피바람이 불고, 이집 저집에서 통곡소리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8일된 아기 예수를 안고 베들레헴에서 약 8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세의 율법대로 첫 아들에게 할례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다(눅 2:2). 그것도 새 왕이 될 아기 소식을 노심초사 하고 있는 헤롯이 머무는 왕궁에서 불과 550미터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다.

게다가 생후 40일이 되는 날에, 또 이 젊은 부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생아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가 짐비들기 한 쌍을 제물로 드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들쳐안고 이집트를 향해 피난의 길을 걸어갔다(마2:14). 이 젊은 아버지 요셉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신생아를 짐에 태운 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이집트까지 장장 천 수백 킬로미터의 고난의 여행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것은 '죄인들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실제 역사적인 드라마의 일부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며 파티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이렇게 숨 막히는 위기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메일: parks@grace.edu

십자말 • Cross Word (107)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 | | | | | | |
|----|----|----|----|----|----|--|
| 1 | 2 | | 3 | 4 | 5 | |
| 6 | 7 | | 8 | 9 | | |
| | 10 | | 11 | 12 | | |
| 13 | | | 14 | 15 | 16 | |
| | | 17 | | | | |
| 18 | 19 | 20 | 21 | 22 | | |
| | | 23 | 24 | 25 | | |
| 26 | 27 | | | 28 | 29 | |
| | 30 | | | 31 | | |

<가로 푸는 열쇠>

- 2. 거룩한 백성(산7:6).
- 3. 열가나의 저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삼상1:1).
- 6. 어떤 형상을 입체적으로 새겨놓은 물건(사74:6).
- 9. 다비다라 하는 여인의 이름을 번역하면...(행9:36).
- 10. 미국, 캐나다 국경에 있는 유명한 폭포(지리).
- 13. 유다 세벨라에 있는 동네(수15:33).
- 14. 에돔을 다스리던 삼라의 고향(대상1:47).
- 18.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양쪽 다(명사).
- 22. 옛날 배슬아치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던 사람(창14:15).
- 23.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의 나라(창9:6).
- 26.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강. 애굽에 있음(사19:7).
- 28. 흙으로 초번 구운 위에 오작물을 얹혀 구운 빵(렘19:10).
- 30. 신학을 전공하고 한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전도의 임무를 맡은 사람(기독교 상식).
- 31. 부지런히 일만 하는 곤충(잠6:6).

<세로 푸는 열쇠>

- 1. 한 족속의 맨 우두머리 조상(사43:27).

- 2.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 안존하는 자는 명철하나(잠17:27).
- 4.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서양풍의 춤(사21:21).
- 5. 르우벤 지파의 성읍(민32:37).
- 7. 각국(잠22:15).
- 8. 예수, 사마리아 여인, 우물과 관계있는 동리(요4:5).
- 11. 유다 서남부 평야에 있는 유다에 속했던 땅(수15:42).
- 12. 사무엘이 낳고 죽은 딸(삼상7:17).
- 13. 소제에 드리는 제물(레 6:15).
- 15. 미디안의 두 방백 중의 한 사람인데, 기드온의 사자가 저를 포도주 틀에서 죽임(사7:25).
- 16. 가족으로 만든 신(렘16:10).
- 17.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심(왕상1:4).
- 19. 어떤 계기로 그 전까지의 생각을 뒤집듯이 바꿈(고사성어).
- 20. 책임을 면함(에2:18).
- 21. 물건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스3:9).
- 22. 화분과에 속하는 1년생 풀(마13:39).
- 24. 고마운 뜻을 상대자에게 나타내는 인사(눅17:9).
- 25. 룻의 시어머니(룻1:20).
- 27. 폭력 또는 함부로써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고후11:26).
- 29. 병든 몸(잠14:13).

십자말 정답

| | | | | | |
|---|---|---|---|---|---|
| 나 | 베 | 포 | 타 | 트 | 트 |
| 잠 | 레 | 나 | 마 | 루 | 가 |
| 하 | 간 | 유 | 에 | 이 | 방 |
| 수 | 백 | 모 | 가 | 아 | 민 |
| 백 | 수 | 만 | 가 | 수 | |
| 백 | 운 | 만 | 만 | 만 | 사 |
| 미 | 오 | 나 | 로 | 이 | 부 |
| 트 | 만 | 나 | 만 | 만 | 레 |
| 스 | 엿 | 간 | 채 | 나 | 가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 | | | | | | |
|--|--|--|--|--|---|---|
|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 오전 5:00 주일2부예: 오전 7:00 주일3부예: 오전 9:00 주일4부예: 오후 2:00 주일5부예: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9:0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후 3:00 주일5부예: 오후 7:30 지체예배: 오후 7:30 Tel: (02)2-2643-8554, Fax: 2648-4662 군포시 금암로 870-10호 | | | | | |
|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 오전 8:00 주일2부예: 오전 9:30 주일3부예: 오전 11:30 주일4부예: 오후 1:30 주일5부예: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32-490-7000, Fax: (82)32-43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 |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9:0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후 1:30 주일5부예: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전 9:00 Tel: (031)977-3339, Fax: (031)977-8382 (우)410-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0-1 |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9:00 주일3부예: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8(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침례인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 오전 9:00 주일2부예: 오전 11:30 주일3부예: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후 6:30 Tel: (02)2648-3181~3, (02)2646-3184 서울시 강서구 목동2동 520 (142-808) |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10:00 주일3부예: 오전 11:30 주일4부예: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5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 오전 5:30 주일2부예: 오전 9:0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을 빼니) Tel: (02)2-2643-855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
|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9:30 주일3부예: 오전 11:30 주일4부예: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 오전 9:00 주일2부예: 오전 11:00 주일3부예: 오전 1:30 주일4부예: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포구 용포동 137번지 |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9:0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8:0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후 3:00 주일5부예: 오후 7:00 Tel: (0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9:3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후 2:00 주일5부예: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80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17길 29(감실동) www.shincheon.org |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 오전 6:00 주일2부예: 오전 7:30 주일3부예: 오전 9:30 주일4부예: 오전 11:30 주일5부예: 오후 1:30 Tel: (02)2-786-6579, 사택(0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 오전 8:30 주일2부예: 오전 10:00 주일3부예: 오전 11:30 주일4부예: 오후 2:50 주일5부예: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제1기동 146-7 |
|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9:00 주일3부예: 오전 11:40 주일4부예: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양곡구 양곡동 415 www.yangkkg.org |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9:30 주일3부예: 오전 11:30 주일4부예: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성가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 오전 6:00 주일2부예: 오전 11:00 주일3부예: 오전 10:00 주일4부예: 오후 2:00 주일5부예: 오후 4:00 주일7부예: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1403-838) |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 오전 7:30 주일2부예: 오전 10:20 주일3부예: 오전 11:30 주일4부예: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 |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 오전 9:00 주일2부예: 오전 11:00 주일3부예: 오전 2:00 주일4부예: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 오전 7:00 주일2부예: 오전 8:30 주일3부예: 오전 11:00 주일4부예: 오전 1:30 주일5부예: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P사모사역원 원장)

14. 사모의 사명 가꾸기 (5)

지난 호에 이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시입니다. 과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현재의 고통을 능히 견뎌 낸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불안하고 폭풍 같은 사건들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면 사모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 쫓길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 암살품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며 가슴조린 경계 속에서 5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칫상을 차려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상상하며 현재의 역경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싶었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미리 맛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원수의 눈앞에서 멋진 잔칫상을 먹는 기분을 느껴 보는 것입니다.

사모들의 원한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분명한 사실도 아닌데 성도들은 애매할 때나 입장이 곤란할 때면 사모에게 다 뒤집어씌웁니다. 특히 성도끼리 서로 다투다가도 아무 죄도 없는 사모를 들먹이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확신으로 담대함 가져 미래는 현재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어...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뿐

23편 5절과 6절은 미래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묘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고백은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다짐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맛을 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를 만나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미래를 그려 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의 미래는 뻔합니다. 믿음이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대로 사는 힘을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 등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매력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도 어길 수가 없기에 자신의 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현대 이민목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사모들에게는 다윗의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일의 약속을 현실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 일수록,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

에 오는 후유증으로 사모는 또 다시 몸살을 하게 되지요.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나라.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모들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때지도 않은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고 우기며 이것이 사모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면 사모들은 피가 거꾸로 솟게 됩니다. 그래도 다정스럽게 남편 목사님이 사모 편을 들어주며 위로를 해주는 남편이라면 다행이나 성도들이 나갈까 염려하여 사모를 압박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책임을 전가하며 몰아칠 때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하지요.

이때 목상할 말씀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질 때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사모들의 생활에는 더 이상 위로의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쫓길 때마다 상상하고 바라보던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실 잔칫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현재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모님들의 장래를 책임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편집자: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모"는 필자 황순원 사모의 건강 사정으로 이번 호로 마감됩니다. 황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하나님께로 난 자(요일4:1-7)찬204장

하나님께로 난 자란 위로부터 거듭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나라를 보고 그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째, 그는 신자를 사랑합니다(1). 같은 곳에서 나왔기에 생명을 서로 나눴기에 그 사랑을 역시 서로 나눕니다. 둘째, 그는 계명을 지키니다(2). 거듭날 때 말씀으로 됐고 말씀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은 집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의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거하며, 그리고 그 복을 즐기며 삽니다.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화락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 세 가지 증거(요일4:8-12)찬182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성령이 증거합니다. 신자 속에 임하신 성령이 새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둘째, 정결 의식에 사용된 도구인 물이란 구약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물의 실체이신 예수만이 자기백성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아들은 죽음의 상징인 피를 통

해 증거를 받습니다. 그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삼중적 요소 곧, 성령의 증거, 구약의 증거, 그리스도 죽음의 증거를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됐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확증으로 살아갑시다.

수 영생가진 자의 기도(요일4:13-16)찬482장

사도는 영생가진 사실을 확증할 목적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13). 무엇이 확증을 갖게 합니까? 첫째,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14).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그 아들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한 것을 받은 확신을 가집니다. 그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을 반드시 받을 확신으

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친밀한 기도로 살아가는 그는 넘어지면 곧 회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가진 자의 확증인 참 기도와 참 생활을 나타냅니다.

목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보장(요일 4:17-21)찬484장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일의 보장을 받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보장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십니다(18). 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됩니다(베후1:4). 둘째, 악한 자(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18). 그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는 것이나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를 지키시는 분이 더 강한 자이기 때

문입니다(마12:29). 셋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17).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령훼방죄(막3:28-30), 짐짓 죄로 고의성을 가진 상습화된 죄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회개할 수 없는 망령된 죄입니다(히 6:6). 이런 죄로부터의 보호는 오직 성령 안에 사는 그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귀한 보장을 주장해 모든 악에서 벗어나십시오(21).

금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요일1:1-2)찬178장

장로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보내며 특이한 문안을 합니다. 첫째, 은혜를 기원합니다. 모든 평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는 진리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은 은혜와 진리의 총만함이었습다(요일1:14). 진리를 바탕으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진리 안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긍휼을 빌었습니다. 긍휼은 모든 은혜

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긍휼 안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가 일어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에서 나온 평강이 우리가 구하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안일과 구분되는 평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토 진리 안에서의 사랑(요일1:4-9)찬319장

사도가 보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자화상은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첫째,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그의 말씀인 계시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모든 글자, 사상, 태도 그리고 모든 흐름을 진리로 따르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까닭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준을 절대 표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진리가 도리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복된 세계로 나가게 합니다. 둘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접합니다. 진리자체가 사랑이나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을 맞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새롭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 · 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화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고난의 신학: 옴기에 대한 묵상 (2)

이승헌 박사
(ITS 총장)



2. 옴과 사탄

내가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인터 내셔널 신학대학원(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의 졸업생들을 방문하러 나이지리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현지 목사들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 몇몇 분들의 이름이 아유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유바'가 무슨 뜻이냐고 하자 한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옴을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는 하우사 언어로 아유바라고 부른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이것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

리에게 예언적인 말로 들린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이방인이 되었고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그렇다. 우리는 풍요와 평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친구이며 형제인 옴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히브리어성경(구약)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로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

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옴기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옴의 진정한 대적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일 것인데 옴의 사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고통이 사탄의 손에서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사탄이 육체적 질병의 원인으로 묘사되는 것은 신약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데 예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허리가 18년 동안 굽은 여인이 사탄에게 묶인 자로 예

를 만들어 준다. 사탄의 반응을 분명히 예측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로부터 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온전한 주의 종으로 소개하신 것이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옴의 초인간적인 고난은 옴에 대한 남다른 하나님의 신뢰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던 옴이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었다면 믿는 이의 고난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옴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고통의 연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옴이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사탄의 채찍질에 넘기신 것이다.

시편 73편 저자는 악인의 행동을 보고 질투한다. 저자 눈에 비치는 악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건강하며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당하지 않았다. 반면에 저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한 생활을 하여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호소한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야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악인의 행통함이

기도/칼럼

잠 못 이루는 밤은 아름답다



박한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한국을 다녀 온 뒤로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마치 밤과 낮이 바뀌어 사는 것 같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함은 보통 피곤한 것과 다르다. 눈을 잠아서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시차를 극복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밤에 뒤척이기는 하지만 은혜는 있다. 누워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전할 말씀을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그저께는 선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디지털시계가 2:20을 뽁뽁게 표시하고 있었다. 문득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시 깨어 시계를 보니 3:16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가 시계를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3:18에 시계가 스톱하고 있었다. 요한일서 3:18을 주시는 것 같았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만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 주님께 죄송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은혜이다.

이메일: bible66@gmail.com

(5면에서 계속)

동물권에 대해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장은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옴기, 신중함, 정의감 등의 덕목을 발휘해야 하는데 동물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종 차이가 있으며 인간만이 본질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인간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는 인간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고 수용하며 배타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직 현실에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것은 동물권리 단체들의 주장에 따른 철학의 한 견해입니다. 미국수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동물 복지의 추구를 지지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나 옷감, 오락과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와 같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책임 있는 동물의 사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물권 옹호자들의 철학적 견해와 개인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축산업과 동물 실험 종사자들은 동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큰 두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동물의 복지(welfare) 개념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복지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복지에 대해 2008년 동물복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개정된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보면 5가지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생리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상해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동물 특성에 맞는 행동 양식을 따를 자유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계속)

옴의 초인간적 고난은 옴에 대한 남다른 하나님의 신뢰 의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고난받는 형제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

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다.

옴기는 구약성경에서 42장이나 되는 긴 책으로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옴이라는 인물도 에스겔서 14장에서는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 당대에 가장 의로운 인물로 여김을 받는다. 하지만 옴이라는 이름은 매우 드물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아마도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서구사회의 사고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있는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 목사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옴과 같은 인생을 추구하고 있나? 아주 드물다. 그러나 북부 나이지리아와 같이 삶의 고난이 생활의 일부인 곳에서는 옴은 피해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들에게 힘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신앙의 영웅(hero)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옴기 19장 13-14절에 나오는 옴의 고통한 고백이 소위 선진국에 사는 우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적한다" 또는 "적이 되다"라는 뜻 가진 옴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옴기 13장 24절에서 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옴이 하나님께 "주께서 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라고 질문한다. 옴의 심중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옴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옴을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27장 7절에 "적"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옴이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적으로 여기며 자신의 적이 악인같이 되고 자신을 치는 자가 불의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옴에게 있어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에도 자신의 친구들임을 의미하고 있다. 옴은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한 존재들이 자기를 들어서 대항하고 있고 그

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그 여인을 안식일에 이 질병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신다. 사도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보낸 고통으로 언급하고 있다(고후12:7).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으로 어떤 때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지만 옴기에서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며 "대적하는 자" 또는 "비난하는 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옴기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로 추측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다. 사탄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할 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옴을 언급하시면서 옴을 옴의 옴이라 보았다고 질투하신다. 사탄이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옴을 들어서 사탄의 관심을 끌게 하신 것이다. 옴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와 같이 의롭고 순전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옴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자라는 대적자로 하여금 옴을 비방하고 그의 신앙의 순결함을 의심하게 하는 기회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님을...

크리스천의 삶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고통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죄임을 상기시키지만 이러한 자책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탄의 비방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주위에 고난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포해야 할 복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도 버림받음 자도 아니다. 다른 이들이 그들을 이방인이며 적으로 여기고 배척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의보다도 더 온전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아우바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이메일: james.lee@itsla.edu



MBA

Investment/ Asset Management, Global Business/ Global Leadership
투자, 자산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Doctor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dership, Entrepreneurial Leadership
조직리더십, 경영리더십



www.midwest.edu,

usa@midwest.edu